



**포커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p>▶ 통일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p>	<p>▶ 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p>	<p>▶ 통일로 통하는 즐거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포커스</b>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li> <li><b>통일 돋보기</b> 북한의 비행기와 항로 (대북제재 이후)</li> <li><b>Today 남북</b> 북한 주민들 커피전문점에서 자본주의를 맛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통일을 여는 사람들</b>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통일 아닐까요?</li> <li><b>통일 Talk</b> 통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키운 옥수수 맛보고 가세요!</li> <li><b>좌충우돌 남한적응기</b> 실수도 1등 성실함도 1등, '직장에서 눈치는 필수 코스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느낌 있는 여행</b> 내 그림고, 그리운 '홍안의 불' 경기도 파주</li> <li><b>통일 웹툰</b> 첫날 옷이 대체 뭔데?</li> <li><b>통일 레시피</b> 연말에 딱 알맞은 꿀깃한 해산을 간치, 원산잡채</li> </ul>

**웹진앱**을 설치해보세요!  
 웹진 이용 GUIDE



지난호보기

웹진 다운로드

구독신청

구독해지

웹진개선의견

<p><b>통일 플러스</b>                  포커스                  통일 돋보기</p>	<p><b>통일 스토리</b>                  통일을 여는 사람들                  통일 Talk</p>	<p><b>남북공감</b>                  Today 남북                  좌충우돌 남한 적응기</p>	<p><b>민주평통365</b>                  남북관계 전문가 대토론회                  평화통일 대토론회                  NUAC 뉴스</p>	<p><b>즐거움 통일</b>                  느낌 있는 여행                  통일 웹툰                  통일 레시피</p>	<p><b>심포, 느낌표</b>                  이벤트 당선작                  이벤트 ①                  이벤트 ②                  이벤트 ③                  이벤트 당첨자 발표</p>
---	---	---	--	---	---





##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예년과 달리 11월 15일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컨센서스로 통과되었다. 이는 북한 인권 상황이 극히 열악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열악한 북한 주민의 인권이 보호(protect), 예방(prevent), 증진(promote)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protect), 존중(respect), 실현(fulfil)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핵심 가해자로 판명되고 있다. 금년도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결의안에서는 "리더십이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과를 인정함으로써 북한 지도층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내에서 인권유린 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저지른 가해자를 법정에서 세워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김정은과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핵심 가해자이기 때문에 북한 내 법정에서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제사회는 북한 내 인권침해 핵심 가해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여 처벌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 제2차 북한인권협의체 회의

국제사회는 북한 내 인권침해 핵심 가해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여 처벌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북한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accountability)을 실현할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9월 9일 소냐 비세르코 전 COI 위원과 사라 후세인 변호사 등 2명의 '책임 규명 독립전문가 그룹'이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인도에 반한 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선별적 제재'(targeted sanctions)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과 오바마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에 입각하여 독자적인 대북인권제재에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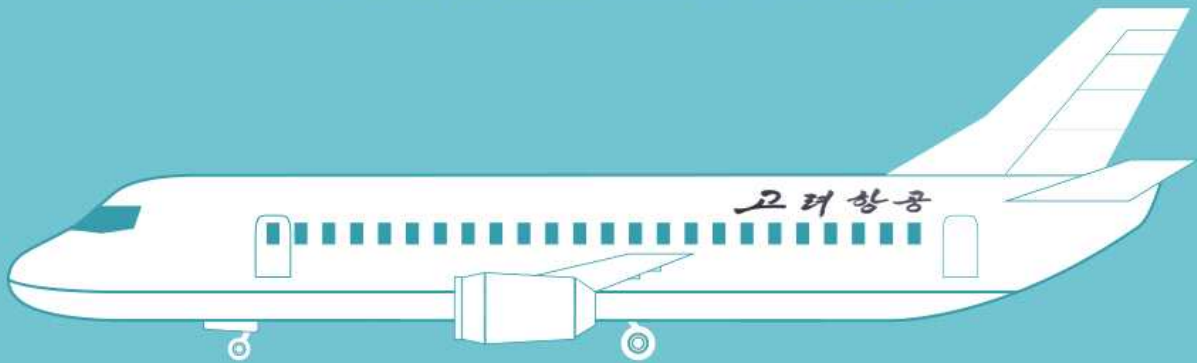




# 북한의 비행기와 항로

##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유일한 국제 항공사 고려항공. 고려항공의 국제 운행 노선은 1990년대 소련과 동유럽 등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대폭 축소되었다. 거기에도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가 채택된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입항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이제 고려항공이 이착륙하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단 2개 국가에 불과하다. 북한의 비행기와 항로, 그리고 대북제재 이후 나타난 변화를 알아본다.



### 남북한 항공사 및 공항, 여객기 비교

#### 항공사

남한



8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에어인천

북한



1개

고려항공



## 국제 공항

남한



8개

인천, 김포, 제주, 무안, 청주, 대구, 김해, 양양

북한



1개

평양순안

## 운항 국가

남한



170개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북한



2개

중국, 러시아

## 운항 여객기

남한



327대

대한항공 159대, 아시아나항공 84대, 진에어 19대, 제주항공 22대, 이스타항공 13대  
에어부산 16대, 티웨이항공 12대, 에어인천(화물) 2대 (2015.12.31일 기준)

북한



4대

고려항공(운항 가능 18대)

## 북한에서 운항중인 여객기



▲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북한 선수단 선발대를 태운 고려항공 여객기(TU-204)가 2014년 9월 11일 오후 인천공항 활주로에 내려앉았다.

### 〈TU-204(2대)〉

러시아에서 2007, 2008년 구입한 기종. EU는 노후화를 이유로 북한 내 다른 여객기의 운항을 금지하고 러시아제 TU-204 항공기 2대만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 취항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대북제재 이후 북한이 운용하는 항공기가 EU 회원국 상공을 비행하거나, 착륙 또는 이륙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 비행기의 최대 탑승 정원은 200명, 항속 거리는 6,000km이다.

### 〈An-148(2대)〉

2013년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온 기종. 2013년 2월에 먼저 한 대를 인수한 이후 2015년 나머지 한 대를 더 인수했다. 최대 탑승 정원은 85명, 항속 거리는 2,100~4,400km.

## UN안보리 결의안 2270호 전 후 고려항공 정기노선 변화

### 5개국 → 2개국



중국, 러시아, 쿠웨이트, 태국, 파키스탄



중국, 러시아

대북제재 전	대북제재 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베이징 · 선양 · 상하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쿠웨이트국제공항, 태국 방콕 운항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베이징 · 선양 운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블라디보스토크 주2회 → 주1회로 축소</li> <li>▪ 상하이 주2회 → 부정기 노선으로 변경</li> <li>▪ 베이징 주5회 → 주3회로 축소</li> </ul>

※ 고려항공 기착지 축소 등 항공기 제재는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에 처음 포함됐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운행 중단)	“안보리 결의안 2270호에 따라 착륙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착륙 불허 결정은 2270호가 유지되는 한 계속될 것이다.”
쿠웨이트 (운행 중단)	지난 8월 고려항공이 중국 북서부의 우루무치를 경유해 쿠웨이트로 향했지만, 쿠웨이트 당국이 입항을 막았다. 쿠웨이트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이 노선은 그동안 주로 중동의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들을 수송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국 방콕 (운행 중단)	4월 태국 정부 각료회의에서 북한 여객기의 운항을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북한이 먼저 방콕 노선 운항 중단을 결정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운행 주기 축소)	북한 어선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면서 마찰을 빚는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상하이 (비정기 편으로 변경)	북한은 “승객이 적은 겨울을 맞아 날짜를 짝어서(특정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참고 :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

## 고려항공에 평양→서울 노선이 있다?



평양→서울 노선 : JS615(고려항공, 6.15 남북 공동 선언을 의미)

서울→평양 노선 : KE815/OZ815(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8.15 광복을 의미)

남북한은 필요한 경우 합의에 의해서 비정기적으로 평양-서울간 노선을 운행해왔다. 북한은 각종 국제 스포츠대회에 참가하거나 남북고위급 회담을 진행할 때 고려항공의 서해 직항로 JS615편을 이용한다. 대표적인 예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으로, 당시 북한 선수단이 JS615편을 이용해 입국 했고, 폐막식에 참가한 황병서·최룡해·김양건 3인방 역시 JS615를 통해 남한에 들어왔다. 한편, 서울에서 평양으로 가는 노선은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 교차방문이 이뤄졌을 때 아시아나가 김포 공항을 출발해 평양으로 가는 항공기 편명을 OZ815로 정했으며, 대한항공 역시 KE815로 편명을 바꾸었다.

※ 감수 :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통일** 아닐까요?

🎨 재미 설치미술작가 강익중



“예전에는 3인치 캔버스에 꿈을 그리라고 하면, 그렇게 작은 곳에 어떻게 큰 꿈을 그리느냐고 묻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나온 뒤로는 다들 어렵지 않게 그림을 그려요. 오히려 작은 그림들이 모여 하나의 커다란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이 신기하다고들 하죠. 템스강에 띄운 ‘집으로 가는 길(Floating Dreams)’이라는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실향민 어르신들의 고향에 대한 기억, 그리움을 한데 모아서 남과 북을, 세계를 잇는 ‘표류하는 꿈’을 표현한 겁니다.”

### 템스강에 띄운 그림 편지, 집으로 가는 길 🎨

강익중 작가는 올해 초부터 실향민들의 그림을 모으기 시작했다. 오랜 세월 어린이들의 꿈을 수집해온 그였지만, 이번 토털리 템스(Totally Thames, 영국 런던의 대표적 문화행사)와 우리나라 광복 71주년을 기념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위해 참여자 범위를 넓힌 것이다. 토털리 템스에 앞서 8월 15일 열린 ‘꿈에 그린 북녘’ 프로젝트는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전시됐다. 전망대의 한쪽 벽면을 약 1만5천장의 실향민 그림으로 가득 메운 전시였다. 물론 전국에 살고 있는 실향민 어르신들과 이산가족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였지만, 전시관을 수놓은 그림들은 고향이 그리워 찾아온 손길들을 따듯이 위로해주었다.



9월에는 런던 템스강에서 실향민들의 그림 500장이 7미터 높이의 큐브 전등 형태로 전시됐다. ‘집으로 가는 길’이 그것이다. 북녘 프로젝트에 비하면 적은 규모이지만, 그곳 밀레니엄 다리를 안전하게 건너도록 하기 위해 크기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 어린이들 그림을 모아서 작업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림을 모으면서 뭔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방향을 돌린 게 우리나라 실향민 어르신들 이야기예요. 고민이 있을 때 제가 기준으로 삼는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것, 내가 아는 것, 필요한 것이예요. 이 기준을 놓고 생각하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분들이 진짜 실향민들이니까요. 물론 우리나라 이야기가 영국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가 고민됐지만, 우리 실향민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템스강이 영국의 남북을 이어주는 곳이기도 했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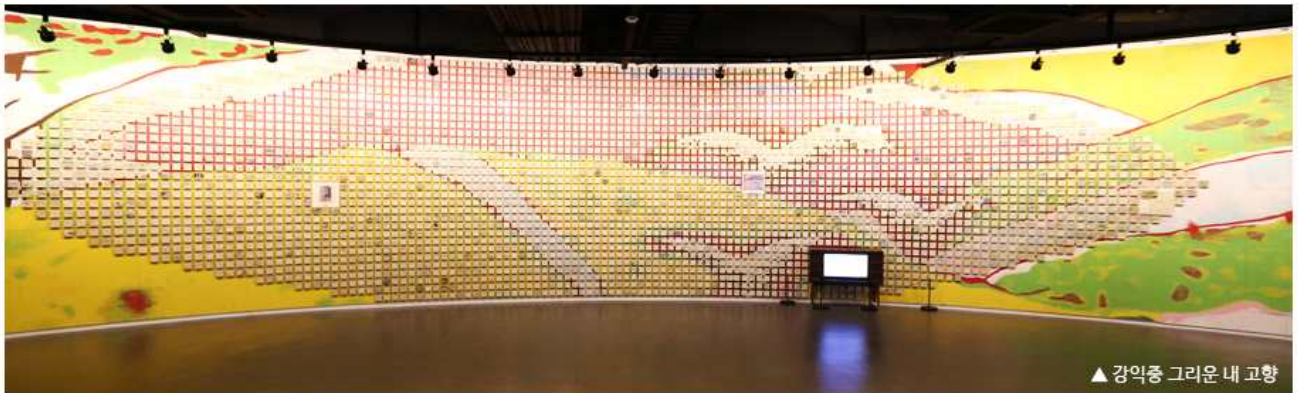
다행히 '집으로 가는 길' 프로젝트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분단의 아픔을 가진 우리 민족의 소망이 템스강을 통해 세계로 퍼져 나가는 '평화의 백신'이 되길 바란다는 그의 마음이 세계로 전해진 까닭이다. 토털리 템스의 창립자 아드리안 에반스 역시 "한국의 실향민 문제는 유럽의 난민 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북녘고향 그리다 만난 이웃사촌 친구들

'집으로 가는 길' 프로젝트는 커뮤니티의 역할이 컸다. 군인, 스님, 신부, 수녀, 재소자들 할 것 없이 많은 봉사자들이 힘을 모았기 때문이다. 봉사자들은 강익중 작가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실향민 어르신들께 고향에 대한 그림을 그려 달라고 부탁했다. 물론 처음부터 녹록지는 않았다. 어르신들 대부분이 느닷없이 무슨 그림이냐며 손사래를 쳐댔던 이유다. 하지만 열심히 고향 이야기를 들어주는 봉사자들에게 어르신들은 마음을 열어주셨다. 실향민 어르신들에게 고향은 너무도 그리고, 아프고, 가고 싶은 곳이라며 그런 소원을 강물에 띄울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강익중 작가는 말했다.

어르신들이 그려놓은 그림은 다르면서도 비슷했다. 작지만 정겨운 고향 집 풍경, 마을 언덕에 피어오른 무지개, 집으로 가는 약도, 텃마루 아래 놓여 있는 스케이트 등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림들이었다.

"꽤 많은 어르신들이 고향집 약도를 그리셨어요. 자식들이 언젠가 찾아가보길 바라는 마음이셨겠죠. 헤어진 가족이나 친구의 얼굴을 그려 놓거나,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쓰신 분들도 많았어요."



▲ 강익중 그리운 내 고향

강익중 작가는 템스강 전시 이후에도 꾸준히 실향민들의 그림을 수집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친구 찾기'를 돕기 위해서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어르신들이 고향 친구를 찾는 일이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

"체육대회를 진행하다가 어르신 몇 분이 생사도 알지 못했던 고향 친구를 만났던 일이 있어요. 뜻밖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림이 조금 더 모이면 군별로 어르신들의 모임을 추진할 계획이에요."

## '연결'을 꿈꾸는 아티스트 강익중

강익중 작가에게 '통일'과 '한글'이라는 주제가 더욱 각별한 이유는 '1997 베니스비엔날레' 국제전 때문이다. 당시 전시에 참관한 국가들 중 우리나라만이 분단국가였고, 남한 작가인 강익중 씨만이 대회에 홀로 참여했던 것. 그날 이후 그는 '끊어진 한반도를 잇자'는 생각으로 3인치 캔버스를 활용한 설치미술을 계획했다. 작은 캔버스 안에는 항상 미래를 통해 꿈을 꾸는 어린이들의 그림을 모으기로 했다. 이런 취지로 전시된 대표작이 '꿈의 달'이라는 작품이다. "어른들은 과거를 통해 미래를 바라보지만, 아이들은 항상 미래를 그리고 꿈꾸거든요. 언젠가 어린이 그림과 실향민 어르신들의 그림을 모아서 임진강을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고 싶어요. 만일 10~20년 안에 통일이 된다면 지금은 서로의 얼굴을 몰라도, 그때는 서로 친구도 되고, 결혼도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그는 '연결'을 중시하는 아티스트다. 더불어 사는 것이 연결이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곧 통일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 연결을 위해 '비어 있는 것', '드러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덧붙이며 3인치 캔버스가 존재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고 설명했다.

## 스스로 '유리천장'을 만들지 마세요!

그는 탈북민과 청년들에게 특별히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유학시절 그가 겪었던 '차별'과 '편견'에 대한 이야기다. 뉴욕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할 무렵 그는 식당에 가거나 아르바이트를 할 때 자신이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마치 '내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 혹은 '동양인이라' 멸시하고 거리를 둔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그런 의심들은 그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점점 더 뚜렷해진 생각은 사람들의 태도가 문제라기 보다, 나 스스로가 만든 '유리천장'이 있다는 느낌이었다.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탈북민이기 때문에, 내가 못났기 때문에 라는 편견을 버리세요. 편견을 가지면 스스로를 한계에 가두는 꼴이 되거든요. 한계는 내 행동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삶을 불행하게 하고요. 그 옛날 소련과 미국이 남긴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가둬 여전히 투쟁하고 있는 것처럼요. 누군가의 행동이 나를 무시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하자면 통일이 아니라, 통일 이후에 무엇을 할지 고민하세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통일이 된 뒤에까지 내가 세계사에 어떤 역할을 하며 살 것인지 꼭 고민해보길 바라요."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탈북민이기 때문에, 내가 못났기 때문에라는 편견을 버리세요. 편견을 가지면 스스로를 한계에 가두는 꼴이 되거든요. 한계는 내 행동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삶을 불행하게 하고요. 그 옛날 소련과 미국이 남긴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가둬 여전히 투쟁하고 있는 것처럼요. 누군가의 행동이 나를 무시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하자면 통일이 아니라, 통일 이후에 무엇을 할지 고민하세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통일이 된 뒤에까지 내가 세계사에 어떤 역할을 하며 살 것인지 꼭 고민해보길 바라요."

〈글.사진 / 강문희〉





'통일옥수수가꾸기'  
참가한 고양고등학교  
학생들

**통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키운 옥수수 맛보고 가세요!**

고양고등학교 뒤뜰엔 여름내 띄약벌과 씨름하며 찰기와 당도를 높인 통일옥수수들이 알알이 영글었다. 밭 한가운데 독도가 있는 한반도 지도 모양을 그리고, 그 주변에 '통일'이라는 글씨 모양으로 옥수수를 심은 고양고등학교 학생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이 제안한 '평화 고양교육 통일 관심 더하기' 사업에 참가한 이 학생들은 지난봄부터 학교에서 통일옥수수(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해 개발한 슈퍼옥수수)를 재배해 왔고, 10월 초 열린 '도시농업한마당 축제'에서 통일옥수수 뽕튀기와 썬 옥수수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통일을 알렸다. '옥수수 죽으면 통일 안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물으며 정성껏 참여한 통일옥수수가꾸기 체험기를 들어봤다.

12월 토크 참가자



김서명



김예지



강현중



권지영



이정준



임혜연



김남균





## 한반도·통일 모양으로 땅 파고 비오는 날 옥수수 심었죠!

**e-행복한통일** : 맹무새·고양이 브리더, 견사 핸들러, 맹수·돌고래사육사가 꿈이라는 애견관리과 학생들이 통일옥수수를 심게 된 계기는 뭔가요?

**서영** : 봉수 쌤(송봉수 선생님)이 저희를 너무 좋아하세요(웃음). 쌤이 제안하셔서 심어봤는데 친구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현중** : 땅을 가꾸고 파종하고 비로 뿌리는 일이 참에 좀 힘들긴 했어요. 남자아이들이 밭 가운데에 팽이로 대한민국 지도 모양의 땅을 파고 주변에 통일이라는 글자 모양의 홈을 만들었죠. 시험 기간이었는데 성적을 버리고 통일옥수수 심을 땅을 팠어요. 통일을 위해서요(웃음).

**지영** : 모종을 이식하는 날에 비가 왔어요. 우비 입고 장화도 신긴 했는데 다들 젖어버렸어요. 그래도 아, 잘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종을 살리기에 딱 좋은 날씨였거든요.

**예지·정준** : 2차로 통일옥수수 모종과 씨앗을 심었을 때는 햇볕이 쨍쨍한 날이었어요. 2인 1조로 한 명은 구멍 뚫고, 또 한 명은 구덩이당 두 개씩 씨앗과 물 넣었는데 한 팀 당 거의 200개 정도 심은 것 같아요(예지). 저는 일하다가 새똥도 맞았어요(정준).

**서영** : 심어놓고 가끔 들여다봤는데, 옥수수가 자라면서 알갱이가 너무 작은 거예요. 농약을 안 치니까 벌레도 많이 먹어서 '이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주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 비오는 날 옥수수 이식



▲ 비오는 날 옥수수 이식

▶ 밭아가갈 된 2차 옥수수



▲ 선생님과 함께 2차 옥수수 심기

## 통일옥수수 인기 만점, 기금 모아 재단에 보내기도

**e-행복한통일** : 지역축제에서 통일옥수수로 만든 빵튀기랑 찐 옥수수 시식행사를 했었죠? 각자 맡은 역할은 뭐였나요?

**정준·남균·현중** : 전시회 당일 날 남자들은 1~2시간 먼저 와서 옥수수 대를 전부 베어 수확했어요. 직접 심은 씨앗을 이렇게 열매로 돌려받으니 뭔가 뿌듯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정준** : 저는 첫째 날 옥수수만 엄청 깎았어요. 그리고 빵튀기를 만들려면 옥수수를 말려야 해서 판을 깔고 그 위에 널었죠. 둘째 날은 공룡이 옥수수를 들고 있는 그림을 그려서 옥수수를 홍보했고요. 셋째 날요? 물론 옥수수 깎죠(웃음).

**남균** : 저희만 한 게 아니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80개 학교가 참여했다고 들었어요. 각 학교별로 홍보 패널을 세워놨는데 저희는 통일옥수수 초청 레시피를 배너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둘째 날에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비도 오고 해서 쓰러질 때마다 계속 세워줘야 했어요.





▲ 옥수수 수확



▲ 식이용 옥수수 손질

**지영·혜령 :** 뽕튀기 아저씨가 통일옥수수를 튀기는 동안 저희는 사람들을 모아 뽕튀기를 나눠드렸어요. 또 드럼통을 가져다가 장작에 불을 붙여서 바로 옥수수를 찢는데 진짜 쫄깃쫄깃하더라고요. 툭툭 터지면서 달고 고소했어요. 우리가 키운 거라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예지 :** 그런데 어떤 아줌마들은 이따시만큼(이만큼) 큰 봉지를 갖고 와서 '아이, 맛있어서~ 내가 좀 가져가도 되나?' 하셨어요. 솔직히 좀 너무한단 생각했지만 애써 '영업용 미소'를 지으면서 가져가시라고 말했죠. 그런데 아가들이 요만한 손바닥으로 한 줌 집어서 훑훑 걸어갈 땐 너무 귀엽더라고요.

**현중·서영 :** 모금활동도 했어요. 처음에는 무료로 나눠드렸는데 이렇게 잘 재배해 놓고 왜 그냥 주냐며 돈을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금함을 설치해서 돈을 받은 뒤에 그 돈을 국제옥수수재단에 보냈어요. 500원짜리 하나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5만 원짜리를 넣어주신 분도 계셔서 돈이 꽤 모아졌어요. 매점 아줌마 아저씨도 오셔서 모금해주고 가셨어요.



▲ 뽕튀기용 옥수수 손질



▲ 뽕튀기 나눔 행사



▲ 통일옥수수 홍보

## 북한 아이들도 이 통일옥수수 먹고 건강해지길!

**e-행복한통일 :** 그런데 통일옥수수(슈퍼옥수수 알록이 찰옥수수 2호)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알고 있어요?

**모두 :** 저 알아요!

**서영 :** 김순권 박사가 북한의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 개량하신 옥수수라고 들었어요. 통일을 위해 무료로 나눠주신 건데 저희가 이 종자를 받아서 키운 거예요.

**현중 :** 북한에는 아직도 배고픈 아이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 통일옥수수를 먹고 조금이라도 힘냈으면 좋겠어요.

**경준 :** 최소한 굶어죽는 일은 없길 바라요. 평화통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키워어요.

**혜령·현중 :** 저희가 옥수수를 가꾸고 모금활동을 해서 북한에 통일옥수수를 보내면 우리 마음을 북한이 알아주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도 통일옥수수를 많이 재배해서 모금활동을 하고, 그 돈이 모여서 통일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어요.





**서영·현중** : 옥수수를 나눠드리니까 맛있더니깐 어떤 옥수수냐고 물어보 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사님 연락처를 알려드렸는데, 우리가 심은 옥수수로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 좋지 않을까요?

**e-행복한통일** : 통일에 대한 우리 학생들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서영** : 통일이 되면 전쟁 걱정을 안 해도 되고 평화로워질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강한 나라가 되고, 이산가족들도 다시 만날 수 있구요.

**예지** : 북한에 자원이 많잖아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거고 나중에 언젠가는 중국과 맞먹는 엄청난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영** : 아냐, 미국을 이겨야지(학생들 간 잠시 미국의 힘이 더 세냐, 중국이 세냐로 논쟁이 벌어졌다). 일단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상태라서 국방비가 많이 들잖아요. 국방비를 절약하면 그 돈을 복지에 쓸 수 있으니까 통일이 필요한 거죠.

## 두만강 물고기 연구, 풍산개 사육 등 다양한 통일의 꿈

**e-행복한통일** : 통일이 되면 뭘 해보고 싶어요?

**해령** : 여행요! 통일이 되면 유럽으로 가는 횡단열차가 다닐 수 있다면 서요? 기차 타고 유럽에 꼭 가보고 싶어요.

**예지** : 맞다,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실감 날 것 같아요. 통일된 뒤에 유라시아 횡단열차 타고 가는 영상을 직접 보면 '오! 신기하다!' 이러면서 볼 걸요.

**지영** : 아냐, 그것도 재미있게 만들어야 보지.

**남균** : 통일되면 금강산에 가보고 싶어요. 평소 아빠한테 골려서(?) 산에 자주 가기도 하고 산을 좋아하는데, 금강산 사진을 볼 때마다 계절별로 계속 바뀌는 모습이 멋있는 것 같아요.

**현중** : 저는 북한말을 배워서 친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서영·예지·지영** : 저도요! 저도요! 북한말 배우고 싶어요. 신기해요. 사투리 같아서 매력적이예요. 근데 북한말도 지방 사투리인 거 아냐? 같은 나라잖아?

**현중** : 중학교 때 탈북학생이 와서 북한 이야기를 해주는 걸 보고 놀랐어요. 사실 편견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깐 북한이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e-행복한통일** : 만약 우리 학교에 탈북학생이 전학 온다면?

**혜령** : 친구가 돼서 남한 문화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전주 한옥마을도 가보고 부산 해운대도 가보고, 실은 온라인게임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메이플○○○요!

**남균** : 함께 배드민턴 칠 겁니다. 점프 스매싱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몸을 써가며 함께 운동하다 보면 금세 친해질 것 같아요.

**e-행복한통일** : 전공이 애완동물관리과인데 통일되면 북한에서 해보고 싶은 일은?

**경준(견사 전공)** : 토종 풍산개를 키워보고 싶어요. 지금 진돗개를 사육하고 있는데 순하고 귀엽고 가끔은 멍한 것 같지만 진짜 똑똑하고 용맹하거든요. 풍산개도 매력 있는 개라고 들었는데 진돗개와는 느낌이 다르겠죠?

**지영(어류 전공)** : 저는 북한 두만강에 사는 물고기들, 남한에서는 사라졌거나 서식하지 않은 물고기들을 키워보고 싶어요. 시식도 해보고요(시식이란 말에 모두들 웃음).

〈글/사진. 기자회견, 송봉수 선생님〉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북한 주민들 커피전문점에서 자본주의를 맛보다

데일리NK 강미진 기자

“우리나라는 겉은 사회주의이지만 속은 자본주의화로 무장됐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에게서 흔히 듣는 말이다. 최근에는 평양과 지방 도시에 고급 커피숍이 잇따라 개점되면서 서양문화가 유행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평가도 있었다. 이에 북한의 커피문화를 통해 권력층과 일반 주민들 간 계급차이를 알아보고, 젊은 세대 간 새로운 만남의 장소로 각광받고 있는 커피숍을 소개하려고 한다.

## ☕ 북한 주민들 “2010년대 우리도 문명하게 살아보자”

북한은 지난 2010년대 초반부터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 곳곳에 커피전문점을 개업해왔다. 최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여전히 커피숍 개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지난 2011년 평양의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내부에 '비엔나 커피숍'을 개점했고 연이어 평양호텔 5층에 '전당대커피숍'을, 2013년에는 해당화관에, 2015년에는 순안공항에 커피숍들을 선보였다. '수입 병'을 철저히 없앨 것을 주민들에게 수차례 강조하고 있는 북한에서 수입산 커피들이 팔리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평가가 나돌고 있을지도 궁금하다. 북한은 주민들의 이런 심경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 연일 대내외 선전매체를 통해 커피숍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내용의 문화생활을 선전하고 있다.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북한의 이런 변화에 대해 “한국에서 맛본 커피를 북한에서도 맛볼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북한 주민들은 평양호텔 커피숍이나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커피숍, 그리고 해당화관, 순안공항 커피숍 모두 일반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고 부유층만을 노린 ‘외화 확보용’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북한이 내놓고 선전하는 이들 커피숍 모두 일반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는 점에서 북한의 계급문화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 북한 평양의 커피숍 '금릉' 입구에 한 여성 바리스타가 서 있다.

▼ 평양 함건거리 커피점





평양의 한 주민은 “대학에 다니고 있는 딸 애가 ‘우리도 문명하게 살아보자’며 ‘커피집(숍)에 가서 커피를 한번 마셔보자’고 졸라대기에 해당화관에 갔었는데, 평범한 일반주민들은 별로 보이지 않았고 무역 일꾼들이나 간부 자녀들, 그리고 해외유학을 갔다 온 학생들이 많았다”면서 “돈 있는 사람들에겐 3,000원이 넘는 커피 한 잔이 대수롭지 않겠지만 대학생 두 딸의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우리 처지에는 한번 가 본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런 평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은 연속적으로 커피숍을 개점하기에 급급하고 있는데, 커피숍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바리스타 교육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대부분 중국 현지에 파견하여 일정 기간 배운 뒤 귀국한 바리스타들이 개점 커피숍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현지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을 만났다는 한 외국인에 따르면, 해외파견노동자로 나왔다가 바리스타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 학생들 사이에서도 부의 상징으로 통하는 이것은?

일반 주민들의 경우 고급 커피숍에서 여유를 만끽할 수는 없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커피문화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내부 주민들의 말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한국산 커피믹스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한국산 커피사랑은 부의 상징으로 통하기도 했다. 생업을 멈출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이 시간을 내서 커피숍에 갈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 구매한 한국산 커피믹스나 중국산 커피를 집에서 즐기기도 하는 것. 주민들은 동네의 한 집에 모여서 커피믹스를 즐기면서 “한국 사람들이 즐겨 마신다는 커피믹스를 마시니까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라는 말도 나온다. 한국산을 사용하는 주민들은 ‘잘 사는 집’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한국산 커피를 즐겨 마시는 학생들은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인정받는다. 그만큼 한국산은 시장에서도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북한 대부분 장마당에서 팔리고 있는 한국산 커피믹스의 가격은 5,500원으로 쌀 1kg과 맞먹는 가격이다. 개성공단이 중단되면서 중국을 통해 일부 유입되고 있지만 북한 시장에서 한국산을 통제하게 되면서 가격은 배로 올랐다. 한국산 커피의 사랑은 법관들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평양의 한 보안서에서는 시장에서 단속한 한국산 커피믹스를 버젓이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일도 있었다. 불법이라고 시장판매를 단속하고 나선 보안원들도 한국산 커피에는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 북한 평양의 한 커피점

◀ 커피숍 메뉴판

## ☕ 남녀 커플이 많은 한국의 커피숍 풍경, 북한서도 볼 수 있어

날씨가 추워지면서 커피숍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요즘, 청춘커플들의 모습도 흔히 보게 되는데 이런 풍경은 북한서도 볼 수 있다. 국경도시의 한 주민은 “요즘 커피집이 생기면서 젊은 청년들이 연애하기 좋은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아직 대중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멋을 좋아하는 젊은층들은 일부러 일을 만들어서라도 커피집에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만큼 북한에서도 서양문화가 일반화되어가고 있다는 징조로 보여진다. 사소한 정보도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북한 당국의 비정상적인 조치 때문에 현재 북한에 몇 개의 커피숍이 개점을 했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는 없다. 하지만 평양을 중심으로 평성과 함흥, 그리고 북부 국경지대인 양강도 해산에서도 커피숍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이 흔히 하는 말인 ‘겉은 사회주의이지만 속은 자본주의’가 아닌 ‘겉도 자본주의, 속도 자본주의화 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날을 기대해본다.



◀ 북한 창건거리 은정 찾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북한 주민들





북한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찻집이나 커피집에서 ▶ 차를 마시고 커피를 즐긴다고 선전하고 있다.



▲ 평양의 거리 곳곳에서는 커피를 들고 다니는 주민을 발견할 수 없었다.

<사진.연합뉴스 / 우리민족끼리 / 조선신보 / 강미진 기자>



## 실수도 1등 성실함도 1등, '직장에서 눈치는 필수 코스죠'



남한에 오자마자 탈북민 생활보조금을 받는 대신 일자리를 먼저 구한 진선이는 식당과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를 두루 거치다가 명동 한복판에 자리한 고급 미용실에 취업했다. 진선이는 말투 때문에 가끔 '조선족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진 북한에서 온 아이'라고 당당하게 말해왔단다. 한국 사람들과 일할 때는 '감추려 하기 보다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진심으로 대해준다'는 걸 경험으로 알았다는 진선이는 '실수도 1등, 성실함도 1등'으로, 부대끼며 남한생활을 배운 덕분에 목표한 것들을 하나하나 성취해가며 남한생활 7년을 알차게 채웠다.

### ● 성실함 하나로 말단에서 대표 스텝까지 '초고속 승진'

진선이는 남한에 오자마자 미용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마땅한 경력이 없어 주로 외식업 계통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제가 일을 하면 열심히 하는 성격이라 되게 좋아하셨다"고 말하는 진선이는,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도 자신을 '양엄마'로 부르라며 유독 잘 챙겨주시는 여자 사장님과 함께 일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양엄마' 사장님은 진선이가 미용사 자격증이 있다는 걸 알고, 그녀가 자주 가는 명동의 큰 미용실에 일자리를 알선해줬다.

진선이는 정직원도 아니었지만, 항상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남들보다 늦게 퇴근했다. 8시에 오픈하는 가게에 7시쯤 출근해 미리 난방기를 켜놓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줬다. 정시에 퇴근하는 다른 스텝들과 달리 진선이는 늘 늦게까지 남아 미용실 문을 잠그고 가곤 했다. 하지만 성실한 것만큼이나 '실수도 1등'이었다는 그녀. 미용학원에서 배우는 것과 실전이 너무 달랐고 모르는 말들이 많다 보니 "욕은 항상 빠지지 않았다"며 웃는다. 특히 롤판이나 아이롱, 스트라이프, 쇼컷트, 롱커트와 같은 외래어는 아무리 해도 익숙해지지 않았다. "한번은 드라이를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고는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드라이가 뭐예요?'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선생님은 손님 앞이라 화도 못 내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져서는 '거기 있잖아!' 하고 눈짓을 하시더라고요.(웃음)"

### ● 실연당해 머리카락 자르러 온 여성에게 "왜 울어요?"

미용실 원장님과 직원들 전체를 긴장시킨(?) 실수도 있었다. 하루는 미용실 VIP 고객의 딸이 왔는데, 평소와 달리 우울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엉덩이까지 오는 긴 머리를 숏컷으로 자르고 싶다고 했다.

"원장님이 머리카락을 막 자르려는데 그 여자분이 계속 우는 거예요. 그냥도 아니고 평평요. 제가 왜 우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선생님들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된 거예요. 그 여자 분이 놀랐는지 저를 한 번 쳐다보더니 다시 막 울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 여성에게는 양가 소개로 만나 오래전부터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최근 그가 바람을 피워 헤어지게 됐다고 한다. '긴 머리가 이상형'이라는 말에 한 번도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던 그녀였다. "실장님이 한쪽으로 불러서 왜 짧까닥(쫘쫘 맞게라는 뜻의 북한말, 사진을 찍으면 찰카닥 소리가 난다는 뜻에서 나온) 나서냐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장 가서 손수건이나 물티슈라도 갖다 주라고. 사실 궁금하기도 했지만, 나를 위로한다고 말 건 거였거든요. 북한에서는 실연 같은 게 일반적이지 않으니깐요. 그때 알았어요. 남한 여자들은 상처를 받으면 머리를 자른다는 걸요."

진선이는 미안한 마음에 싹둑 잘린 긴 머리카락을 모아다가 예쁘게 태를 땀(북한말, 머리를 땀다는 뜻) 다음 상자에 넣어 선물했다. 그 여성은 기분이 좀 나아졌는지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고 다행히 상황은 잘 수습됐다. 진선이는 그때 '아, 사회생활에는 눈치가 필요하구나, 눈치는 필수 코스구나' 깨달았다고 했다.

## ● 매달 돈 보내며 혼자 사느니, 빨리 모셔오는 게 낫죠!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일한 탓에 진선이는 말단 스텝으로 출발했다가 원장님 스텝으로, 그리고 다시 대표님 스텝까지 치고 올라갔다. 아침밥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출근한 뒤, 종일 바빠 일하다가, 오후에 좀 한가해질 무렵에나 김밥 한 줄로 식사를 대신하던 진선이는 위경련이 오는 등 건강이 매우 나빠졌지만 빨리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꼭 참고 일했다. 겨울엔 관리사무소로부터 '왜 이렇게 난방비가 적게 나오느냐'고 전화가 올 정도로 돈도 아껴 썼다.

"그런데 돈이 거의 모아졌을 때 가족들을 데리고 오려고 사람을 다섯 번이나 보냈는데 엄마가 겁이 난다며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젠 돈 안 보낼 거라 협박까지 해서 겨우 모셔왔죠. 엄마랑 동생 모두 남한에 온 걸 후회 안 해요."

진선이는 남한에서 주는 정착금에 의존하기보다 차라리 빨리 한군데 '뿌리' 내려서 한 2년만 참고 일하면 길이 보인다고 말했다.

"가족이 북한에 있으면 매달 50~70만 원씩 보내는데, 브로커 수수료까지 떼고 나면 정말 얼마 안 남거든요. 남한 문화가 신기하니까 돈을 헤프게 쓰는 사람들도 많은데, 너무 일찍 자본주의 문화에 몰들기보다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먼저 데려와야 해요."



## ● 토대 나빠 보안원 탈락, 남한에서는 경찰행정대 입학

북한에 있을 때 진선이의 꿈은 보안원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토대'가 좋지 않아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걸렸다'는 진선이. 진선이의 아빠 역시 '영재'로 불렸지만 김일성 종합대에 붙었다가 석연창은 이유로 최종 불합격 판정을 받는 등 '토대' 문제는 대대로 진선이 집안의 발목을 잡았다. 진선이는 북한에서 접어둔 꿈을 이곳에서 다시 펼쳐보고 싶었다.

"남한에서 만난 북한 친구 헤미가 대학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대학엘 가야겠다고 맘 먹었어요. 미용실을 그만 두고 준비해서 경찰행정학과를 갔죠. 북한에서 보안원이 못 됐으니까 남한에서 경찰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선이는 다른 학우들과 나이 차도 많이 나고 레포트도 제대로 쓸 줄 몰랐지만, 학과 친구들이 북한에서 왔다는 걸 알고 언니 누나처럼 편하게 배려해줘서 즐겁게 대학생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훈밥, 훈술(훈자 먹는 밥, 훈자 마시는 술)'을 해본 적이 없었다며 웃는다.

진선이는 대학 재학중 1년 간 휴학을 하면서 캐나다에 나가서 어학원 매니저로 근무했다. 그 덕분에 영어를 곧잘 했고, 특유의 친근감과 명랑한 말투 덕분에 대기업 계열사에 취직할 수 있었다.





이미 미용실 등에서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경험했던 진선이는 새로운 출발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다. 비록 시작이 늦긴 했지만 대학에서 4년, 외국에서 1년간 추가로 쌓은 경험과 지식이 그녀의 앞길에 든든한 징검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글. 기자희>

나의 살던 고향은

농림산물·광물 풍부했던 **길주**, 지금은...

진선이의 고향은 함경북도 온성으로, 지난 45호 '정애아주머니' 편에서 소개됐기 때문에 이번 호에서는 그 아랫 동네인 길주군에 대해 알아봤다. 이곳에는 길주평야가 있어 벼나 옥수수 등의 농산물이 풍부하고 사과, 배 등 과일도 많이 재배되는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가문비나무, 잎갈나무 등 산림자원도 풍부해 종이를 가공하는 펄프공장과 밥상이나 책상 등의 재료가 되는 합판공장이 위치해 있다. 광물로는 온성군과 마찬가지로 석탄이 유명한데, 그밖에 운모, 규조토 등 다른 지하자원도 많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진행된 핵실험 때문에 인근 주민 일부가 안타깝게도 '이상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은 방사성 물질 유출 등의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최근 국제회의석상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지금까지 모두 풍계리에서 실시했으며, 지역 주민 중 상당 수가 암, 심장병, 감각기관 이상, 다리 마비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 위 사례에서 소개된 북한의 문화는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경험에 의한 것으로 현재 북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과 탈북 연도를 참조해주세요. <나의 살던 고향은>은 북한이탈주민에게 듣는 내고향 이야기입니다.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방안’ 모색

민주평통 ‘제19차 남북관계 전문가 대토론회’ 개최



민주평통은 한국정치학회와 함께 지난 11월 4~5일 1박 2일간 NH농협생명 변산수련원에서 ‘한반도 통일, 북한의 비핵화와 변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치·외교·안보 분야 학계와 언론, 연구기관 전문가 31명이 함께한 이 날 토론회는 유호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인사말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방안’(1세션)과 ‘북한체제 불안정과 한반도 통일구상’(2세션)을 주제로 각각 진행됐다.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개회인사에서 “한반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 속에서 열린 남북관계전문가 토론회이니만큼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선순환적 변화, 대북제재의 효과와 문제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주도적으로 풀어갈 것인가, 북한 정권의 안정성 혹은 불안정성 등에 대해 통일전문가와 정치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주옥같은 생각과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 1세션, 대북제재 하의 북핵문제 해결 방안 논의

조윤영 중앙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1세션에서는 박재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방안 : 제재와 압박을 중심으로’ 발제와 이기현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의 ‘한반도 정세 변화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 모색’ 발제, 그리고 이에 대한 참석자 전원의 토론이 있었다.

### ■ 소 다자간 안보협력을 통한 대북 압력 강화 필요



박재적 교수는 발제에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가 분야나 대상을 특정하고 있어 기준이 모호하고 중국의 적극적인 이행 부족한 가운데, 미국은 북한이 미국 영토 타격 능력을 구축할 경우 ‘본토방위’의 맥락에서 북핵 문제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이 한반도 위협을 고조할 경우 미국에 유화적 자세를, 북한에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는 반면 한미가 대규모 군사훈련 등을 할 경우, 미국에 강경 자세를 취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한다는 북중간 ‘동맹게임’과 ‘적대국과의 게임’을 소개하며,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 시 위협의 강도를 최대한 고조함으로써 중국을 ‘속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미·중 간 비전통안보와 군사제재를 위한 전략대화가 필요하며, 이 자리에서 대





▲박재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북 군사제재를 논의할 경우 중국의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 다자 국방협력을 강화하고 미국 주도의 소 다자 협력에 동참하면서, 미국이 배제되는 소 다자 협력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현 박사는 중국이 4차 핵 실험 이후 제재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5차 핵 실험 이후 △북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북핵의 중국 안보이익과 부담감 △한미일 대북 강경책 명분 축적 및 사드 배치의 정당성 제고 등으로 중국의 한반도 딜레마가 가중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또한 한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은 동북아 정세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반도 사드 배치 갈등 역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북한은 한중관계의 위기를 활용해 중국의 대북제재 이완, 북중 경험 강화, 정치적 관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방지 및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 협력과 동북아 경제 번영을 이뤄나가는 순으로 협력을 모색해야 하며, 특히 한국은 대북제재의 목표에 대한 명확한 대중국 홍보전략을 구축해 제재가 북한권권 붕괴나 보복이라는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북 3성 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비전 제시 등 중국이 제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중국 역시 한국의 국가안보 위협과 한중관계를 고려한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현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 ■ 중국의 실질적인 대북제재 참여 위한 유인책 필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국익에 따라 전면적 제재보다는 스마트 제재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가 안보와 경제 등 국익에 도움이 될 경우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며, 중국의 경제 손해의 폭을 줄이는 등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90% 이상으로 밀무역이 공무역의 50%를 차지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한중간 경제관계가 중국에 더 이익이 크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존과 달리 사드 문제 등으로 한국 변수가 중국에게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두현 경기도 외교정책특별보좌관



▲남경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정봉 한중대학교 교수



▲남광규 고려대학교 교수

또한 대북제재는 북한에 대한 제재의 성격과 목적을 △징벌적 차원 △경고성 차원 △행태의 변화 추동 차원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비확산 문제와 북한 핵위협 관리문제를 구분해 접근하고, 한미 또는 남북 당사자 간에는 북한 핵위협 관리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사드 문제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중국의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은 미국이 북중관계나 북미관계를 미중관계의 하부구조로 바라봤기 때문에 군사적 행동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와 미국 본토 공격 능력에 대한 평가가 등장하면서 미국이 본토 방위 측면에서 보는 경향이 등장하는 등 군사제재가 하나의 옵션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실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반면 북한과 중국 간에는 동맹게임이나 적대적 국가 게임 프레임이 지금까지 유효하고 북한이 이를 잘 활용하고 있지만,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론에 대해 중국이 동참할 경우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조영기 고려대학교 교수



▲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형수 단국대학교 교수



▲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 2세션, 북한체제 불안정과 한반도 통일구상

김석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2세션에서는 황수환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의 '북한체제 불안정과 한반도 통일구상'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 ■ '선도형 통일' 진입 위한 조건과 과정 제시

황수환 교수는 먼저 북한체제의 안정성과 불안정 변수는 향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통일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현재 북한을 안정적으로 보는 관점과 불안정하게 보는 관점 등 두 가지 판단의 근거를 각각 제시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의 호전성, 새로운 엘리트 그룹 형성,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성공의 불투명성, 양극화 현상 및 민심 이반 등을 불안정 요인으로 꼽았다. 이어 '선도형 통일 방안'을 대안 중 하나로 내세우며, 필요조건으로 반드시 북한 주민이 통일을 원하고 개혁 통일 지향의 북한 정권이 등장하며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충분조건으로는 남한이 통일에 대한 의지를 결집하고 능력을 갖추는 한편 남북한 간 경제·사회·문화교류와 정치 협상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가 밝힌 선도형 통일 3단계 과정 중 1단계는 북한 주민의 인식변화, 정치적 균열,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김정은 정권 리더십 약화이다. 2단계는 리더십 약화에 따라 권력이 분산되고 정권의 생존능력 한계에 따라 다수 정권의 등장과 소멸이 반복된 후 북한 주민의 요구에 의한 개혁 정부가 등장하는 것이다. 3단계는 내부 자원의 한계에 의해서 개혁 프로그램이 제한적으로 실시되거나 실행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황수환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 김석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박진수 덕성여대 교수



▲ 고경민 제주대학교 교수



▲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신대진 성균관대학교 교수



## 북한 변화 추동하기 위해 북한주민 접근방안 마련해야

황 박사의 발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부의 정보를 북한에 주입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휴대전화, TV, 인터넷 등 외부정보 유입구조를 다양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북한에서의 정보 유통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북한 주민이 스스로 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내부 정보 유입과 인권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탈북민과의 연계활동 전개 등 북한 주민과의 접촉면을 확대하고 통일인식 확산을 위한 방안을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일이 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북한 주민을 진정한 통일파트너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통일한국에 대한 위상과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주변국과 북한 주민에 대해 적극 홍보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안제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원



▲ 유호근 청주대학교 교수



### 참가 전문가 (사진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성조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

△신대진 (성균관대 교수)

△고경민 (제주대 학술연구교수)

△김정봉 (한중대 교수)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김형수 (단국대 교수)

△김용현 (동국대 교수)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한범 (국방대 교수)

△임성학 (서울시립대 교수)

△이응수 (KBS 보도국 북한부장)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

△박진수 (덕성여대 교수)

△이한수 (순실대 교수)

△정수현 (명지대 미래정치연구소 전임연구원)

△우정민 (한국외대 외래교수)

△유인태 (연세대 교수)

△안제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유호근 (청주대 교수)

△차두현 (경기도 외교정책특별보좌관)

△황수환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

△김석우 (서울시립대 교수)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부위원장)

△조윤영 (중앙대 교수)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궁영 (한국외대 교수)

△이기현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박재적 (한국외대 교수)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참가소감

# “통일 정책방향을 검토·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됐어요!”

### 우정민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있는 현 상황에서 민주 평통이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북한체제의 불안정 여부 진단, 한-미, 한-중 협력 속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 모색, 한반도 통일구상과 정책적 방향 등을 근본적으로 검토 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 이응수 부장(KBS 보도국)

많은 전문가분들의 각각 다른 의견을 들으며 스스로의 생각을 점검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어요. 남북한은 전쟁 등 극단적인 상황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통일은 사실 어려운 과제죠. 여러 통일방안 이론을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유인태 교수(연세대학교)

장시간 집중력 있게 진행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법과 정치·경제·사회적 함의를 밝힐 수 있었어요. 나아가, 전략적 추상적 논의에서 구체적인 정책적·현실적 수단까지 폭넓게 논의하고,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북한 인권 개선 위해 종교 및 보건의료계가 앞장선다!

민주평통 12개 주요 단체와 '평화통일 대토론회' 열어

9월 4일 북한인권법이 발효되고 10월 말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공동으로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의 해외파견 근로자의 인권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는 등 국내외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계와 보건의료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통일을 위한 종교·복지계의 역할과 국론결집'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한 인권 개선은 물론 탈북민의 안정적인 남한 정착 지원에 대해서도 종교·보건·의료분야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 종교 및 보건의료단체, 북한 인권 개선 위해 결집

민주평통은 7대 종단 대표단체 및 5개 주요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지난 11월 9일(수) 프레스센터에서 '평화통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평통 종교복지분과위원회 주관 통일부, 통일준비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약 300여 명의 시민, 단체회원 및 학생 등이 참석했다. 종교계는 성균관 유도회, 원불교 중앙총부, 천도교 중앙총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등 7개 종단이, 보건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 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5개 단체가 각각 참가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 및 기조연설에 이어 1세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과 2세션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적응과 정착 지원 방안'을 주제로 총 16명의 패널이 토론에 참여했다.

먼저 유호열 수석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바웬사 폴란드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소련이라는 제국, 공산당이라는 조직에 맞서 변화를 이룰 때 '신앙'과 '가치'에 대한 확신' 2가지로 어려움을 이겨냈다"며, 통일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보건의료인 만큼 간호조무사협회 50만, 대한의사협회 15만, 치과협회 3만 명 등 전 의료인들이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면, 통일은 물론 통일 이후 성공적인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건의료분야의 통일 노력을 당부했다.



▲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부회장

이어진 종교 및 보건의료단체 대표들의 환영사에서 최성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중경회장은 "한국교회는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민 지원에 힘써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며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고,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보건의료계가 평화통일을 앞



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보건 의료 및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통일의 꿈을 구체화시켜나가자고 말했다.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돼 온 탈북민 의료봉사활동을 소개하며, 대북 보건사업의 경우 시급한 것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을 돕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최성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중경회장



▲ 후무진 대한의사협회장



▲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



▲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은 기초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반드시 관찰시키되, 남북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통일에 대한 노력을 중단할 수는 없다"며, 일관된 통일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진정한 통일은 남북한 주민 모두가 하나의 민족공동체 속에 용해될 때 비로소 가능하기에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뿐 아니라 우리 사회, 주변 이웃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도움이 필요하다"며, "종교계와 의료계가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 이러한 과정이 북한동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1세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 논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을 주제로 한 1세션은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승철 북한개혁방송 대표의 북한인권실상 영상보고에 이어 북한 주민의 종교의 자유 증진, 북한 내 외부정보 유입을 위한 종교단체 실천방안, 제3국을 방황하는 탈북민 구제방안, 해외파견 노동자에 대한 인권보호활동, 남한 내 북한 인권 지원과 국론결집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 등에 대해 토론했다.

김태훈 변호사는 "UN인권조사위원회 발표 그대로 북한의 인권상황은 최악이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행해지고 있어 종교계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러시아 벌목공 출신인 김승철 대표는 실제 북한 외국 노동자들의 삶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며, 증거와 자료를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승철 북한개혁방송 대표



## 종단대표들 '북한 인권 개선 위해 종교가 노력해야' 한목소리

월도 스님(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은 2003년 북한 영통사 복원 경험을 이야기한 뒤, "변화가 없다고 생각했던 북한에도 10여 년에 걸쳐 종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종교의 전파가 핵보다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훈일 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정책실장)는 "실제 곁에서 본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삶이 중동 난민보다 훨씬 열악하지만 핵실험 등으로 현재는 접촉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인도적 측면에서 지원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정정숙 관장(천도교 교화관)은 "외부정보를 통해 북한 주민 스스로가 인권유린 상황을 자각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남북 종교 교류의 물꼬를 터야 하며, 직접 만나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권태오 사무처장



김용환 위원(한국민족종교협의회)은 현재 3만 명인 탈북민이 10만 명이 될 때까지 탈북민들의 남한 정착을 도우면서 탈북민 10만 명 시대를 대비하는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을 약속했고, 박영기 원장(성균관유도회 교육원)은 유교적 가치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되찾아주고 탈북민을 먼저 보듬으며, 성균관의 유산 및 의례 등을 공유하여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창원 이사(원불교 한민족한삼운동본부)는 "7대 종단의 합의를 중심으로 인권 개선 활동이 추진되어야 하며 대북 지원의 경우, 종교계를 통해 인도적 차원에서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규호 부위원장(한기총 인권위원회)은 "북한 인권 개선 활동과 아사자를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은 상호 보완적으로, 투 트랙으로 함께 가야 한다"며 특히 종교계가 탈북자 강제복송 반대 활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 2세션 '보건복지단체의 탈북민 남한사회 정착 지원 방안' 논의

이수구 민주평통 종교복지분과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2세션에서는 강동완 부산 하나센터장 (동아대학교 교수)이 발제를 맡았으며 5개 보건의료분야 대표들이 패널로 참가해 북한의 보건복지체계와 주민 건강,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건복지 지원체계 등을 짚어봤다. 이수구 위원장은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며 3만 명의 탈북자를 보듬을 구체적인 방법과 경험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동완 교수는 발제에서 최근 탈북 추이와 경향에 대해 △여성 입국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중국 장기 체류 탈북여성의 국내 입국이 늘었으며 △러시아 별목공 출신의 남성들 역시 증가했다고 설명하면서,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전염병, 특히 결핵 보급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치료와 보호조치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지역 하나센터 인력 및 전문상담사 역시 예방접종과 검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탈북민들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교재에 북한식 표기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북한 출신 간호조무사를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채용토록 해줄 것을 제안했으며, 아울러 탈북민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해 건전한 성의식 및 양성평등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수구 민주평통 종교복지분과위원장



## 탈북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의료보건분야 지원 약속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분야에서 남북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통일 후 통합의료와 관련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며, 통일 전 배출된 북측 의사들의 면허인정 관련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탈북민의 저작능력(씹는 기능) 회복과 치아 상실에 따른 사회생활 부적응 해소를 위해 탈북민 전담진료기관을 설치하고 치료비 지원정책을 확대하며 보건의료교육과 공공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지영 대한한의사협회 이사는 탈북민들이 흔히 갖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등에 대한 장기적인 치료 지원, 한의학의 면역증진 및 치료효과의 장점을 모자 및 아동 보건 증진 사업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 강동완 부산하나센터장



▲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 남지영 대한한의사협회 이사



또한 백찬기 대한간호협회 홍보국장은 통일간호포럼을 중심으로 한 학문체계 정비 및 통합 교육과정 개발, 관련 법령 정비, 간호사 면허 취득 및 유지방안 마련, 용어체계 통일 등을 이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고, 최종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문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활성화 등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간호조무사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탈북민 간호조무사 양성 및 취업 지원 TF팀을 구성하고 통일 후 북한에서 활동할 간호조무사 양성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인들은 유진벨재단이 주력하고 있는 다재내성 결핵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통일 후 이를 해결하려면 남한이 부담해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이 많아진다"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기자희 / 사진:신영민>



## “의료인들과 학계가 선도적으로 통일 대비해야”



**이재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장**

탈북민 지원을 넘어, 통일을 대비한 교육이 필요할 때입니다. 서울대학교에 통일치의학센터를 만든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탈북 치과의사도 배출하고 북한 교육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탈북학생 특별전형도 마련했구요. 그런 미래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토론하고 협력할 수 있었으면 해요. (사진 오른쪽)



**이혜경 박사(새삼 대표)**

의료분야에 탈북민들이 활발히 진출하려면 탈북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먼저 개선되어야 합니다. ‘열등하다’ 보다는 ‘다르다’는 생각으로, 하지만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의식을 갖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의사국가고시가 실시되는데 이 고시를 준비하는 탈북민 의사들에게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NUAC NEWS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통일운동 중심체로서  
 통일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건의 하는 것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확산하고  
 통일여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美 대선 이후 '동북아정책 변화와 한반도 통일' 주제로 '2016 한미 평화통일포럼' 뉴욕에서 개최





민주평통 뉴욕협의회(회장 정재건)는 지난 11월 17일 뉴욕 컬럼비아대학교에서 '2016 한-미 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미국 대선 이후 정책변화에 따른 한미공조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번 포럼에는 미주지역 협의회장, 자문위원, 한인 지도자와 동포, 컬럼비아대 학생 및 교수 등이 참여했다. 포럼은 '동북아 정책 변화와 한반도 통일'이라는 대주제 아래 '한반도 정책과 북한 변화 가능성(1세션)'과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한미 동맹(2세션)'을 주제로 진행됐다. 유호열 수석부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변화, 한반도 통일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역설하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제재와 압박정책에서 5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단호한 의지가 더욱 빛났다"며, "향후에도 한미공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통일 · 대북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대주제로 '2016년 4분기 정책건의' 위한 분과위원회 개최



▲ 인사말씀을 하는 유호열 수석부위원장(좌)과 권태오 사무처장(우)

민주평통 9개 분과위원회는 지난 11월 2일부터 14일까지 사무처에서 '2016년 4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각각 개최했다. 유호열 수석부위원장과 권태오 사무처장, 분과위원장 및 소속 분과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분과위원회에서는 지난 3분기 의장 정책건의 대주제인 '통일대북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를 논의했으며 정책건의 보고서에 담길 주요내용을 심의했다. 분과위원회는 지난 4년간의 통일 대북정책에 대해 △남북관계의 변화와 무관하게 꾸준히 통일 공감대 확산에 주력했고 △원칙 있는 대북정책 추진을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으나 △북한의 잇단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저하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17년 정세 전망 및 추진방향으로는 △지속 가능한 통일준비 체계 제도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의 효율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법 제시 △대북제재 관련 국제공조 지속 강화 등을 논의했다. 향후 민주평통은 9개 분과위원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건의 종합집필팀 회의'와 '상임위원회'를 통해 최종 정책건의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 대구시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마음 대축제 열어 북핵 위협 극복 의지 다지고 탈북민 · 주민 간 화합의 장 마련







대구지역회의(부의장 박규하)는 11월 6일 대구 공업고등학교에서 시민, 북한이탈주민, 실향민, 다문화가정 등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통일한마음 대축제**를 열었다. 대구시민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된 이번 행사는 북핵 규탄 결의대회와 체육대회, 한마음 마당, 시상식 및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권태오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의 극단적인 도발로 야기된 현재의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그리고 행사에 앞서서는 박규하 대구부회장과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지역협의회 회장단, 유관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통일정세와 북한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국론결집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통일시대시민교실, 포럼, 강연회 등**



자문위원  
연수

▼ 자문위원 연수 (대전지역회의)



▲ 자문위원 연수 (광주지역회의)



▲ 자문위원 연수 (부산지역회의)



광주지역회의(부의장 최상준)는 10월 1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6 하반기 광주지역 자문위원 연수'를 개최해 유호열 수석부회장의 특강과 전문가 강연, 탈북민과 함께하는 통일토크콘서트 등을 진행했다. 부산지역회의(부의장 이영숙)도 이날 부산코모도호텔에서 **부산지역 자문위원 연수**를 실시했고, 대전지역회의(부의장 강영자)는 20일 대전비엠케이컨벤션에서 **대전지역 자문위원 연수**를 개최했다.

▼ 자문위원 연수 (서울 노원구협의회)



▲ 자문위원 연수 (경남 거제시협의회)

▼ 자문위원 연수 (전남 영광군협의회)



서울 노원구협의회(회장 신해주)는 11월 2일 '2016년 하반기 서울지역(동북권) 자문위원 연수'를 홀리데이 인 서울 성북 개최했고, 경남 거제시협의회(회장 김정길)는 4일 거제 대명리조트에서 '경남지역 자문위원 연수'를 실시했으며, 전남 영광군협의회(회장 권재국)도 10월 27일 영광힐링컨벤션타운에서 전남 서부권 11개 시·군협의회 자문위원들과 함께 **자문위원 연수**를 개최했다.



통일  
강연회



▲ 통일강연회 (부산 동구협의회)



▼ 통일강연회 (부산 중구협의회)



▼ 통일강연회 (인천 서구협의회)

부산 동구협의회(회장 강영자)는 11월 11일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청에서 '2016 통일강연회'를 열었고, 부산 중구협의회(회장 임무성)도 10일 구청에서 주민들과 함께 '2016 통일강연회'를 진행했다. 인천 서구협의회(회장 유정학)는 10월 20일 서구청에서 강범석 대행기관장(구청장), 심우창 서구의회의장,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지역사회 통일준비 강연회'를 열었다.



▲ 통일홍보강연회 (대전 서구협의회)



▲ 통일공감 강연회 (경북 칠곡군협의회)



▲ 통일공감 안보강연회 (경북 고령군협의회)

대전 서구협의회(회장 김보영)는 11월 3일 갈마1·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TV프로 '이제 만나러 갑니다'의 출연자를 초청해 '통일홍보강연회'를 개최했고 경북 칠곡군협의회(회장 이수현)는 10월 21일 순심고등학교에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통일공감 강연회'를 열었다. 경북 고령군협의회(회장 이상용)는 10월 19일 대가야문화누리에서 고령군여성단체협의회, 이장협의회, 재향군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통일공감 안보강연회를 개최했고, 충남 계룡시협의회(회장 김원태)는 11월 11일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을 초청해 '찾아가는 통일강연회'를 실시했다.



▲ 찾아가는 통일강연회 (충남 계룡시협의회)

포럼



▲ 강원평화통일포럼 (강원지역회의)

▼ 충남평화통일포럼 (충남지역회의)



강원지역회의(부위원장 박용성) 강원평화통일포럼은 11월 4일 시청에서 박용성 강원부위원장, 김철래 강릉부시장, 18개 시·군 협의회장 등 강원 포럼회원, 전문위원 등을 대상으로 '제31차 강원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고, 충남지역회의(부위원장 김병목)는 11월 11일 선문대학교 아산캠퍼스에서 포럼회원, 통일교육위원, 전문위원,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하반기 충남평화통일포럼'을 열었다.



통일  
좌담회



▲ 여성통일 좌담회 (전북 완주군협의회)



▲ 여성통일 좌담회 (경남 고성군협의회)

전북 완주군협의회(회장 정완철)는 10월 20일 완주 가족문화교육원에서 여성단체 대표와 회원, 자문위원들과 함께 '여성통일 좌담회'를 개최했고 경남 고성군협의회(회장 김성진)도 다음 날 고성청년회의소에서 '여성 통일 좌담회'를 열었다.

▼ 여성-통일 좌담회 (경북 청송군협의회)



▼ 여성통일좌담회 (경기 포천시협의회)



▲ 여성단체와 함께하는 통일좌담회 (충북 단양군협의회)

경북 청송군협의회(회장 김양태)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신승란)는 10월 25일 군청에서 여성위원,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통일 좌담회'를 진행했고, 경기 포천시협의회(회장 오병익)도 10월 28일 시청에서 '통일과 여성, 사회화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016년 지역여성단체와 함께하는 여성통일좌담회'를 개최했으며, 충북 단양군협의회(회장 정하모)는 11월 2일 단양관광호텔에서 '2016 여성단체와 함께하는 통일좌담회'를 열었다.

▼ 여성단체와 함께하는 통일좌담회 (전북 김제시협의회)



▲ 여성 통일 좌담회 (충남 공주시협의회)



▲ 지역리더와 함께하는 통일좌담회 (대구 남구협의회)

전북 김제시협의회(회장 도인기)는 11월 1일 '2016 여성단체와 함께하는 통일좌담회'를 개최했고 충남 공주시협의회(회장 김기필)도 10월 20일 한옥마을에서 여성단체회원, 북한이탈주민 등과 함께 여성 통일 좌담회를 열었다. 대구 남구협의회(회장 노판석)은 11월 8일 남구청에서 임병현 대행기관장(구청장), 권태형 부구청장을 비롯해, 관내 단체 임직원, 지역 원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리더와 함께하는 통일좌담회'를 개최했다.

통일시대  
시민교실







▲ 통일시대 시민교실 (충북 영동군협의회)



▲ 통일시대 시민교실 (충남 서산시협의회)



▲ 통일시대 시민교실 (전남 해남군협의회)

민주평통 각 지역협의회는 통일·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적실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일반 시민, 학생,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16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꾸준히 개최해오고 있다. 충북 영동군협의회(회장 정원용)는 10월 26일 영동인터넷고등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16 통일시대 시민교실' 통일토크를 진행했고, 충남 서산시협의회(회장 송낙인)는 25일 서산경찰서에서 시민, 경찰·소방 공무원들과 함께 '2016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열었으며, 전남 해남군협의회(회장 명채규)도 28일 해남군 여성회관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2016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했다.



▲ 통일시대 시민교실 (대구 동구협의회)



▼ 통일시대 시민교실 (충북 청주시협의회)



▼ 통일시대 시민교실 (전북 부안군협의회)

대구 동구협의회(회장 송진오)는 11월 9일 신천4동 주민센터에서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6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했고, 충북 청주시협의회(회장 안덕호)는 8일 서원구청에서 청주시민들과 함께하는 2016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진행했으며, 전북 부안군협의회(회장 이영식)는 7일 새마을중앙회 부안군지회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열었다.



▲ 통일시대 시민교실 (부산 사하구협의회)



▲ 통일시대 시민교실 (서울 광진구협의회)



▲ '작은 마음, 큰 통일' 통일콘서트 (경기 여주시협의회)

부산 사하구협의회(회장 배백식)는 11월 10일 구청에서 지역주민 및 관내 공무원 등과 함께 '2016년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했으며, 서울 광진구협의회(회장 최복수)는 10월 24일 구의 광장 새마을금고에서 녹색어머니회, 새마을문고, 프리미 봉사단 회원 및 북한이탈주민 등과 함께 '2016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열었다. 경기 여주시협의회(회장 임영현)는 10월 18일 5컨벤션에서 여주시민들과 함께 '작은 마음, 큰 통일' 통일콘서트를 진행했다.



▲ 대학생 통일교육 학술회의 (충북지역회의)



▼ 인천지역 대학생 통일문제 토론회 (인천지역회의)



▲ 통일비전 발표회 (전북지역회의)



충북지역회의(부의장 한상길)는 11월 15일 청주대학교에서 '2016년 대학생 통일교육 학술회의'를 진행했고, 인천지역회의(부의장 허회숙) 청년분과위원회는 10월 28일 인천대학교에서 통일동아리 회원 및 일반 학생, 청년자문위원 등과 함께 '2016 인천지역 대학생 통일문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북지역회의(부의장 송현만)는 14개 시·군협의회 협의회장, 청년위원장을 비롯한 100여 명의 여성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8~29일 군산 베스트 웨스턴호텔에서 통일비전 발표회를 열었다.

▼ 여성 통일리더 아카데미 (서울지역회의)



▼ 통일역량강화 순회교육 (전북 임실군협의회)



▲ 자문위원 통일 연수 (충남 금산군협의회)

서울지역회의(부의장 손경식)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김영숙)는 10월 25일 '2016년 여성 통일리더 아카데미' 수료식을 개최했고, 전북 임실군협의회(회장 김인기)는 11월 9일 오수고등학교에서 '통일역량강화 순회교육'을 실시했으며, 충남 금산군협의회(회장 태진수)는 11월 8~9일 자문위원들의 역량강화 및 친선도모를 위한 '자문위원 통일 연수'를 마산대학교와 경남통일관에서 실시했다.



▲ 합동연수 (제주 제주시협의회)

▼ 자문위원 통일역량강화 워크숍 (부산 서구협의회)



▲ 여성지도자 통일교육 워크숍 (전남 고흥군협의회)

제주 제주시협의회(회장 임강자)는 자매결연협의회인 중국 광저우협의회(회장 허남세)와 10월 19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합동연수를 개최했고, 부산 서구협의회(회장 류채형)는 11월 12~14일 제주도 일원에서 '자문위원 통일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전남 고흥군협의회(회장 김정설)는 10월 13일 고흥종합문화회관에서 관내 여성단체 회원 등과 함께 '여성지도자 통일교육 워크숍'을 열었다.

▼ 자매결연 협약식 (전남 여수시협의회&경기 고양시협의회)

▼ 군수 간담회 (충북 진천군협의회)



▲ 워크숍 (서울 강북구협의회)



서울 강북구협의회(회장 김송대)는 10월 30일~11월 1일 임원단 및 북한이탈주민, 통일염원 운영위원 등 약 40여 명과 함께 한라산에 올라 통일염원 기원제를 올리는 등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남 여수시협의회(회장 박정일)와 경기 고양시협의회(회장 박호영)는 11월 4일 엠블호텔 그랜드블룸에서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고, 충북 진천군협의회(회장 박승서) 협의회장 및 분과위원장 등은 10일 송기섭 군수의 간담회를 가졌다.



## 통일문화 확산



### ▼ 남북, 통일로 비비다 (전북 전주시협의회)



▲ 명랑운동회 (경기 군포시협의회)



▲ 시흥시민 통일 한마당 (경기 시흥시협의회)

전북 전주시협의회(회장 나춘균)는 10월 20~23일 개최된 2016 전주비빔밥축제에서 북한음식 판매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맛있는 통일밥상 '남북, 통일로 비비다' 행사를 개최했고, 경기 군포시협의회(회장 백영자)는 10월 22일 군포시민체육공장에서 탈북민, 통일무지개단 회원들이 모두 한데 어우러지는 **명랑운동회**를 열었다. 경기 시흥시협의회(회장 성낙헌)는 11월 10일 시청에서 '2016 시흥시민 통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 강남 통일문화축제 (서울 강남구협의회)



### ▼ 통일 생생토크행사 (전남 목포시협의회)



▲ 제주청년, 통일을 이야기하다 (제주지역회의)

서울 강남구협의회(회장 김정현)는 봉은사와 함께 지난 11월 5일 '둘이 하나되는 통일 Talk', '둘이 하나되는 통일 음악회'등으로 구성된 **강남 통일 문화축제**를 열었고, 전남 목포시협의회(회장 우승하)는 10월 26일 목포대학교 학생들과 '통일 생생토크쇼'를 진행했다. 제주지역회의(부의장 김순택) 청년위원회(위원장 김치용)도 이날 한라아트홀에서 관내 대학생, 청년들과 함께 '제주청년, 통일을 이야기하다' 행사를 개최했다.

### ▼ 시민과 함께하는 통일공감 강연 및 음악회 (경기 광명시협의회)



▲ 통일안보강연회 및 평양백두한라예술단 공연 (강원 양양군협의회)



▲ 북한백두한라예술단 초청공연 (강원 강릉시협의회)

경기 광명시협의회(회장 윤순갑)는 10월 26일 광명시민회관에서 '통일을 이야기하고 통일을 노래하자'를 슬로건으로 '2016년 시민과 함께하는 통일공감 강연 및 음악회'를 개최했고, 강원 양양군협의회(회장 김현수)는 11월 8일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관내 주요인사 및 보훈단체회원 등 양양군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안보강연회 및 평양백두한라예술단 공연'을 열었으며, 강원 강릉시협의회(회장 김화복)도 10월 27일 강릉단오문화관에서 시민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북한백두한라예술단 초청공연'을 열었다.





▲ 제5회 연수구 주민화합을 위한 통일합창대회 (인천 연수구협의회)



▲ 평화통일 영원 음악회 (충북 보은군협의회)



▲ 평화통일가원 가을 음악회 (전남 영암군협의회)

인천 연수구협의회(회장 장한조)는 10월 22일 구청에서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연수구 주민화합을 위한 통일합창대회'를 개최했고, 충북 보은군협의회(회장 이남수)는 23일 보은대추축제가 열리는 뱃들공원에서 3천여 명의 관객이 모인 가운데 '2016년 평화통일 영원 음악회'를 열었다. 전남 영암군협의회(회장 김성대)는 11월 4일 영암군사회복지관에서 기관, 사회단체 임직원, 군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통일가원 가을 음악회'를 개최했다.



▲ 제3회 평화통일국악경연대회 (충남 천안시협의회)



▲ 통일의 꿈! 통일노래 개사대회 (경남 함양군협의회)



▲ 통일 어울림세상 (전남 구례군협의회)

충남 천안시협의회(회장 유병수)는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의장 김법혜 스님)와 함께 10월 16일 천안예술의전당에서 '제3회 대한민국 평화통일국악경연대회'를 열었고, 경남 함양군협의회(회장 이영재)는 26일 군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통일의 꿈! 통일노래 개사대회'를 개최했다. 전남 구례군협의회(회장 이종석)는 10월 28일 구례군여성문화회관에서 지역여성들과 함께하는 '통일 어울림세상' 행사를 진행했다.

통일안보 현장견학



▲ 통일안보현장견학 (경기 오산시협의회)



▲ 통일안보현장견학 (경기 의왕시협의회)



▼ 군민과 함께하는 안보현장탐방 (강원 횡성군협의회)

경기 오산시협의회(회장 백대현)는 11월 9일 시민들과 함께 인천강화 DMZ를 견학했고, 경기 의왕시협의회(회장 이필정)는 10월 27일 봉사단회원, 시민 등과 함께 강원도 양구로 통일안보 현장견학을 다녀왔다. 강원 횡성군협의회(회장 조원용)는 11월 14일 서울 용산전경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2016년 군민과 함께하는 안보현장탐방'을 실시했다.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역사속의 보령 여성을 찾아서 (충남 보령시협의회)







▲ 통일안보현장견학 (광주 남구협의회)



▲ 남북통일기원 한마당 체육행사 (경기 안산시협의회)

광주 남구협의회(회장 서병연)는 10월 21일 강화도로 통일안보 현장견학을 다녀왔고, 충남 보령시협의회(회장 오치인) 여성자문위원들은 10월 18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역사속의 보령 여성을 찾아서'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경기 안산시협의회(회장 유오복)는 11월 5일 성호소운동장에서 민주평통 부설 통일대학 주관으로 통일대학 충동문화, 북한이탈주민, 안산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 통일기원 한마당 체육행사'를 개최했다.

▼ 제13회 평화통일염원 군민 등반대회 (충북 증평군협의회)



▲ 통일기원 등반대회 (충남 예산군협의회)

충북 증평군협의회(회장 강춘희)는 10월 29일 증평역 광장에서 관내 주요인사 및 군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평화통일 염원 군민 등반대회'를 열었고, 충남 예산군협의회(회장 정달순)는 11월 5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서산 팔봉산 일원에서 '통일기원 등반 대회'를 진행했다.



▲ 시민과 함께하는 통일한마음 등반대회 (경남 밀양시협의회)



▲ 통일준비 한마음 걷기대회 (부산 동래구협의회)



▲ 평화통일기원 연제구민 한마음 걷기 대회 (부산 연제구협의회)

경남 밀양시협의회(회장 윤정일)는 11월 15일 산성산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통일한마음 등반대회'를 열었고, 부산 동래구협의회(회장 이태희)는 10월 29일 온천천 인공폭포에서 초청 내빈, 지역주민, 탈북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준비 한마음 걷기대회'를 실시했다. 부산 연제구협의회(회장 안재권)는 11월 12일 '2016 평화통일기원 연제구민 한마음 걷기 대회'를 진행했다.



▲ 지역문화 알리기 (경기 고양시협의회)



▼ 용인시민 도전! 통일골든벨 (경기 용인시협의회)



▲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행사 봉사활동 (강원 영월군협의회)

경기 고양시협의회(회장 박호영)는 10월 18일 지역문화 알리기의 일환으로 임진왜란 의병 '밥할머니' 공원을 방문하고 밥할머니 추양제에 사용할 물품을 보조위원회에 기증했다. 경기 용인시협의회(회장 황신철)는 11월 12일 신갈고등학교 체육관에서 450여 명의 시민들



과 함께 '2016년 용인시민 도전! 통일골든벨' 대회를 개최했고, 강원 영월군협의회(회장 김유영)는 10월 25일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행사에 참석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 김장나눔행사 (경기 의왕시협의회)  
 ▲ 통일홍보활동 (전남 보성군협의회)

▼ 연말맞이 군부대 격려 방문 (경기 김포시협의회)

전남 보성군협의회(회장 김길두)는 10월 28~29일 벌교고막축제 행사장을 찾은 군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통일홍보활동을 펼쳤고, 경기 의왕시협의회(회장 이필정)는 11월 14일 시청에서 평통 봉사단 등과 함께 '2016년 김장나눔행사'를 진행했다. 경기 김포시협의회(회장 최선희)는 11월 12일 인근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위문했다.



통일미래세대 육성



▲ 중학생 역사·통일골든벨 대구경북지역대회 (대구 달서구협의회)



▲ 중학생 통일골든벨 대전·세종·충남지역대회 (충남 홍성군협의회)



▼ 중학생 통일 골든벨 강원대회 (강원 철원군협의회)

대구 달서구협의회(회장 김옥열)는 10월 27일 열린 '2016 민주평통 중학생 역사·통일골든벨 대구경북지역대회'에 관내 7개 중학교(대건중, 영남중, 상인중, 새본리중, 이곡중, 죽전중, 원화중) 15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참가해 평화상(대건중 2, 연남중 1)을 수상했다. 충남 홍성군협의회(회장 이무형)는 10월 26일 홍성여자중학교, 홍주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2016년 중학생 통일골든벨 대전·세종·충남 대회'에 참가해 통일상(홍주중)을 수상했다. 강원 철원군협의회(회장 현대섭)는 10월 24일 원주 치악 체육관에서 개최된 '2016 중학생 통일 골든벨 강원대회'에 참가했다.



▲ 중학생 통일골든벨 강원대회 (강원 춘천시협의회)



▲ 청소년 통일골든벨 (전남 광양시협의회)



▲ 4회 도전 초동학생 나라사랑 통일골든벨 (경북 상주시협의회)

강원 춘천시협의회(회장 이돈균)는 10월 24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개최된 '2016년 중학생 통일골든벨 강원대회'에 참가해 '평화상(강원중 3년)'을 수상했고, 전남 광양시협의회(회장 정용관)는 10월 14일 광양용





강중학교에서 '2016년 청소년 통일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 경북 상주 시협의회(회장 권세환)는 11월 10일 상산 초등학교체육관에서 초등학교 5~6학년, 지도교사, 학부모 등이 참가 한 가운데 '4회 도전! 초등학교 나라사랑 통일골든벨'을 개최했고, 대구 서구협의회(회장 최종석)는 10월 27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6 중학생 역사·통일 퀴즈왕 대구경북대회'에 참가했다.



▲ 중학생 역사·통일 퀴즈왕 대구경북대회 (대구 서구협의회)

통일교육



▲ 찾아가는 통일교육 (경기 부천시협의회)



◀ 청소년 통일교육 (경기 하남시협의회)

▼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실 (충북 충주시협의회)



경기 부천시협의회(회장 김기명)는 10월 24일 관내 상동중학교에 이어 성주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일교육'을 실시했고, 경기 하남시협의회(회장 류인호)는 11월 14일 미사강변초등학교에서 학교 방문 '청소년 통일교육'을 진행했으며, 충북 충주시협의회(회장 석종호)는 10월 26일 충주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실'을 열었다.

통일 미술대회



▲ 평화통일 그림그리기 대회 (충북 옥천군협의회)



▼ 어린이 통일공감 미술대회 (경기 이천시협의회)



▲ 나라사랑 통일미술대회 (경남 사천시협의회)

충북 옥천군협의회(회장 곽균상)는 11월 3일 옥천체육센터에서 관내 초등학교생과 인솔교사, 학부모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가 꿈꾸는 통일'을 주제로 '평화통일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했다. 경기 이천시협의회(회장 오문식)는 11월 5일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앞 광장에서 유치부, 초등부, 학부모 및 교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어린이 통일공감 미술대회'를 열었다. 경남 사천시협의회(회장 전재석)는 11월 10일 삼천포학생체육관에서 초·중·고등학생 및 시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6 나라사랑 통일미술대회'를 실시했으며, 충북 괴산군협의회(회장 박용호)는 10월 24일 성신유치원 5~7세 아동 3개 반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태극기그리기 체험'을 실시하고,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동영상으로 설명했다.

▼ 나라사랑! 태극기그리기 체험 (충북 괴산군협의회)



안보현장 견학



▼ 안보현장견학 (경기 가평군협의회)







▲ 통일안보견학 (서울 관악구협의회)



서울 관악구협의회(회장 이정범)는 10월 25일 관내 봉원중학교 학생 및 교사,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경기도 파주 일대에서 '통일안보 견학'을 실시했으며, 경기 가평군협의회(회장 이병재)는 11월 8일 가평초등학생, 교사 등과 함께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견학**을 다녀왔다.

▼ 유소년 통일단 하반기 통일안보견학 (경남 창원시협의회)



▲ 청소년 통일안보 현장견학 (전남 화순군협의회)



▲ 통일안보견학 (제주 서귀포시협의회)

경남 창원시협의회(회장 김길화)는 11월 11일 사천 항공우주박물관과 거제포로수용소에서 관련 기관장 및 유소년 통일단원, 지도교사, 학부모 등과 함께 '유소년 통일단 하반기 통일안보견학'을 실시했으며, 전남 화순군협의회(회장 홍남희)는 10월 20~21일 '2016 청소년 통일 안보현장견학'을 다녀왔다. 제주 서귀포시협의회(회장 이경용)는 10월 17~19일 관내 초등학생들과 함께 강원도 고성군 일원에서 통일안보견학을 실시했다.

▼ 청소년 통일안보 현장견학 및 체험활동 (전북 익산시협의회)



▲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통일현장체험 (부산 기장군협의회)

▼ 청소년 통일 안보현장 체험학습 및 찾아가는 통일 참여 교육 (경남 합천군협의회)



전북 익산시협의회(회장 김영배)는 10월 20~21일 철원병영체험수련원에서 관내 중학생, 지도교사 등과 함께 '2016 청소년 통일안보 현장견학 및 체험활동'을 실시했고, 부산 기장군협의회(회장 김세현)는 11월 11일 모전중학교 학생, 인솔교사, 북한이탈주민 등과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통일현장체험'을 다녀왔다. 경남 합천군협의회(회장 이점용)는 10월 21~22일 '2016년 청소년 통일안보 현장체험 학습 및 찾아가는 통일 참여 교육'을 실시했다.



▲ 청소년 통일공감 안보강연회 (경북 문경시협의회)

▼ 역사통일 아카데미 (부산 남구협의회)



▼ 통일꿈나무 체육한마당 (충남 서천군협의회)



경북 문경시협의회(회장 이재석)는 11월 11일 점촌중학교에서 '2016 청소년 통일공감 안보강연회'를 열었고, 부산 남구협의회(회장 박동천)는 10월 22일 관내 지역아동센터 학생들과 독립기념관을 견학하는 '2016 역사통일아카데미'를 실시했다. 충남 서천군협의회(회장 홍순석)는 10월 19일 서천국민체육센터에서 '2016 통일꿈나무 체육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제13회 통일로 가는 수성구민 화합 한마당 (대구 수성구협의회)



▲ 북한이탈주민과의 어울림 한마당 (광주 북구협의회)

대구 수성구협의회(회장 신철범)는 10월 24일 관내 주요인사,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수성 구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이 함께하는 제13회 통일로 가는 수성구민 화합 한마당'을 개최했고, 광주 북구협의회(회장 김선남)는 11월 6일 전남 보성 일대에서 '북한이탈주민과의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 ▼ 북한 음식점 운영 (경북 영주시협의회)



▲ 사랑나눔 김장 담그기 (경기 김포시협의회)



▲ 통일한마음 체육대회 (경기 수원시협의회)

경북 영주시협의회(회장 정주현)는 10월 15~23일 영주·풍기 인삼축제장에서 '북한 음식점'을 열고, 판매 수익금은 관내 탈북민들에게 지원했다. 경기 김포시협의회(회장 최선희)와 김포적십자산후봉사회(회장 함홍삼)는 10월 24~25일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과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 다문화가정에 전달할 사랑나눔 김장행사를 실시, 600여 가정에 전달했다. 경기 수원시협의회(회장 손재필)는 10월 29일 경기도청에서 관내 주요인사, 북한이탈주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통일한마음 체육대회'를 열었다.

### 문화체험



◀ 남구 탈북민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인천 남구협의회)

▼ 탈북민과 함께하는 통일문화체험 (대구 달성군협의회)



인천 남구협의회(회장 신병희)는 10월 26일 '2016년 남구 탈북민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행사를 가졌다. 대구 달성군협의회(회장 김상문)는 10월 22일 무장공비 침투지역인 울진 해룡부대를 방문하고 안동 경북도청 신청사를 견학하는 등 '탈북민과 함께하는 통일문화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 과천문화탐방 (경기 과천시협의회)



▲ 제주도 문화탐방 (경기 안양시협의회)



▲ 산업시찰 및 문화탐방 (서울 양천구협의회)

경기 과천시협의회(회장 이순형)는 11월 12일 과천시협의회가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탈북아동생활공동체 아이들을 초청해 **과천 문화탐방**을 개최했고, 경기 안양시협의회(회장 이상호)는 10월 24~25일 북한이탈주민,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제주도로 문화탐방**을 다녀왔다. 서울 양천구협의회(회장 임경하)는 10월 27~28일 관내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포항제철, 불국사, 석굴암 등으로 **산업시찰과 문화탐방**을 다녀왔다.



▲ 천연염색&한과만들기 체험 (충북 충주시협의회)



▲ 멘토-멘티 탈북민과 제주탐방 (경남 김해시협의회)



▼ 고성 통일전망대 견학 (경북 구미시협의회)

충북 충주시협의회(회장 석중호)는 11월 12일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천연염색과 한과만들기 체험**을 실시했다. 경남 김해시협의회(회장 안병석)는 10월 16일 **멘토-멘티 탈북민과 제주탐방**을 다녀왔으며, 경북 구미시협의회(회장 김철호)는 10월 30일 관내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고성 통일전망대**를 견학했다.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기원제 (서울 종로구협의회)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사과나무심기 (경남 양산시협의회)



▲ 통일자전거 함께 타기 (경기 화성시협의회)

서울 종로구협의회(회장 권혁상)는 10월 22일 동묘 앞 광장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기원제'**를 열었고, 경남 양산시협의회(회장 전재근)는 11월 12일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사과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경기 화성시협의회(회장 홍진환) 여성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허인숙)는 11월 9일 관내 북한이탈주민에게 **통일자전거를 증정하고 함께 타는** 행사를 실시했다.



▲ 멘토-멘티 어깨동무 동반대회 (서울 강남구협의회)



▲ 농구경기 관람 (경남 진주시협의회)



▲ 멘토링 김장 배추무 나눔행사 (서울 중랑구협의회)



서울 강남구협의회(회장 김정현)는 10월 15일 멘토와 멘티가 함께 북한산 둘레길을 산행하는 '멘토-멘티 어깨동무 등반대회'를 개최했고, 경남 진주시협의회(회장 원호영)는 11월 13일 어깨동무하기 멘토링 11월 행사로 창원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는 농구경기를 관람했다. 서울 중랑구협의회(회장 김상희)는 11월 12일 김장에 필요한 배추와 무를 멘티 각 가정에 나눠주었다.

2016년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인천 계양구협의회)



▲ 북한이탈주민 초청 통일 수다방 (경기 구리시협의회)



▲ 북한이탈청년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간담회 (경기 의정부시협의회)

인천 계양구협의회(회장 최재현)는 10월 19일 구청에서 북한이탈주민 자녀 15명에게 도서 및 학습지를 전달했고, 경기 구리시협의회(회장 신영출)는 10월 21일 시청에서 여성분과위원, 지역주민들과 함께 '2016 북한이탈주민 초청 통일 수다방' 행사를 개최했다. 경기 의정부시협의회(회장 김점순)는 11월 2일 한꿈학교를 방문해 북한이탈청년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해외 지역 통일활동



▲ 통일아카데미 미주 제1기 수료식 (오렌지-샌디에고협의회)

오렌지-샌디에고협의회(회장 권석대)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과 함께 10월 22일 스탠턴 김스피아노 리사이트홀에서 '통일아카데미 미주 제1기 수료식'을 열었다. 수료식에는 수료생 23명과 경근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한인단체장, LA총영사관 류광열 영사, 졸업생 가족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9월 16일부터 6주간 진행된 통일아카데미 1기에서는 통일·외교·경제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21세기 국제정치와 한반도 통일, 북한 인권문제, 북한경제 현황, 평가 및 전망, 남북경제통합과 통일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 비영리 시민 안보단체 '블루유니온' 시카고협의회 방문 (시카고협의회)



미국 시카고협의회(회장 이문규)는 10월 22일 평통 사무실에 내방한 비영리 시민 안보단체 '블루유니온' 일행과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한반도 안보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제주도 협의회와 합동회의 (광저우협의회)

중국 광저우협의회(회장 허남세)는 10월 19일 제주도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함께하자 통일시대, 앞당기자 통일미래'를 주제로 **제주시 협의회(회장 임강자)와 합동회의**를 가졌다. 이번 합동회의에서는 협의회 사업현황을 영상으로 소개한 뒤, 고성휴 제주도협의회 지회장과 김영택 광저우협의회 감사가 각각 '평화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자문위원 역할', '타국에서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고,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 평화통일 기원 한마음 등반대회 (베이징협의회)

중국 베이징협의회(회장 정재화)는 2016년 10월 22일 베이징 백천산 공원에서 **'평화통일 기원 한마음 등반대회'**를 실시했다. 자문위원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평화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산행에서는 경상북도 북경대표처의 산행 사진 콘테스트 행사가 함께 열렸으며, 자문위원들은 '우리의 소원'을 합창하며 산행을 마무리했다.

미국 LA협의회(회장 임태량)는 10월 13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원 원장 등 4명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통일문제 임원간담회**를 열었다. 신 원장은 "북한은 공포정치를 통해 국가경영을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권력 엘리트들의 북한 이탈이 크게 늘어나는 등 대북제재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북한의 브레이크 없는 핵 질주 차단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해외 자문위원들과 동포들이 국민적 통합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통일문제 임원간담회 (LA협의회)





미국 SF민주평통(회장 정승덕)은 10월 11일 KOTRA에서 신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초청해 '최근 북한정세 평가 및 우리의 대북 정책'을 주제로 **강연회**를 실시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연구원 관계자와 자문위원, 재향군인회, 6.25참전 전우회, 코인, 글로벌어린이 재단, 지역 단체장, 한인회임원과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신언 원장은 "북한이 핵 포기를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보일 때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원칙을 가지고 제재의 동력을 이어가는 데 모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내 그립고, 그리운 홍안의 봄

경기도 파주



“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울긋불긋 꽃 대궐 차리인 동네  
그곳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

연분홍빛 여렸던 손가락으로 숫자를 다 헤아리기 전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으며, 떠나온 길. 세월의 고됨으로 헤지고 굳어진 손가락은 이제 굵어진 마디를 굽히는 일조차 쉽지 않은데 아직도 짐으로 돌아가는 길은 아득하기만 하다. 그 사이 훌쩍 벗고 물장구치던 동무의 이름도, 사탕 한 알에도 신경전을 벌이던 누이 얼굴도, 해가 지도록 뒤꿈치로 쫓아다니기 바빴던 어미의 품도 흐릿해져만 간다. 또 다시 한 해의 끝, 어쩌면 이제 몇 해가 더 저물고 나면, 이 흐릿한 기억마저 사그라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그만 돌아가고 싶다. ‘홍안(紅顔)의 봄’을 품은 내 고향으로. 한 해의 끝, 그보고 싶어 애타는 마음들이 모여 봄을 기다리고 있는 경기도 파주로 달려간다.



## 그 곳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

서울의 심장이라는 한강을 옆구리에 끼고, 북으로, 북으로 달리다 그만 발이 묶이고 말았다. 더 이상은 나아갈 길조차 막아버린 철조망 너머 이제나 저제나 돌아갈 수 있을까 고대했던 고향 땅이 선명하게 펼쳐진다. 애타는 마음은 이미 고향 땅을 수 백, 수 천 번도 더 밟았지만, 몸은 천 리, 만 리 떨어져 그 거리를 좁힐 길이 없다. 그나마 함께 길을 떠났던 한강만이 유유히 임진강과 한 몸이 되어 다시 서해로 흘러간다.

예로부터 서울과 개성을 지키는 군사적 요충지로 옛 고구려와 백제가 치열한 전투를 벌이기도 했던 오두산. 그 정상에 터를 잡고 있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오르자 황해도의 겨울풍경이 펼쳐진다. 똑같은 계절이 흐르는 북한의 일상은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긴 겨울을 나기 위해 김장을 할 테고, 딸감을 마련하며, 집 안팎을 손볼 것이다. 문득 ‘일반인 진입금지’라는 경고문조차 서럽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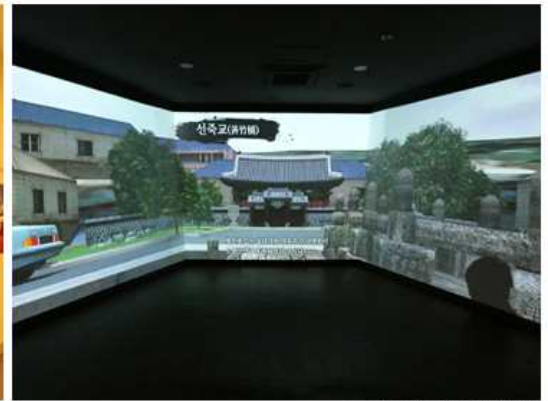






▲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본 북한

다행히, 최근 재개관한 전망대 안에는 북한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 및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아쉬운 마음을 달래준다. 먼저 지하 1층 '어린이 통일체험관'에서는 북한의 중산층 초등학생의 생활상을 재현한 '북한 친구들 이야기', 'DMZ를 넘어서', '신나는 통일' 등 아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에 좋은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또 지상 1층에는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기획전시실과 통일 편익에 관한 전시물들을 볼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기억을 찾아서'는 북한 주요 도시의 풍경을 영상으로 관람할 수 있는 시설로 일반 관람객은 물론 실향민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 오두산 통일전망대 내부

2층 전시실에서는 설치미술가 강익중 작가가 참여한 '그리운 내 고향'을 관람할 수 있다(47호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조). 이산가족들이 직접 그림이나 글로 표현한 고향의 모습을 활용한 작품으로, 희미해지는 기억 저편의 따뜻했던 고향을 떠올리는 이산가족들의 절절한 마음을 눈으로 더듬고 있다면 왈칵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문득 눈앞으로 펼쳐지는 진짜 북한 땅을 보고 싶은 마음에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옥외로 나선다. 고성능 망원경을 통해 바라본 북한은 손에 잡힐 듯 가깝고, 친숙하다. 그러니 눈앞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은 오죽할까. 쉬이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옮겨, 이번에는 남쪽 사람들의 옛 추억을 따라가 본다.

## 촉고,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날들, '근현대사박물관'

뺨뺨한 검정색 교복에 까만 고무신, 전봇대마다 붙어있던 반공 구호와 오래된 영화 포스터들, 어쩌다 얻은 엇가락 하나면 하루가 행복했던 그 시절.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그리 멀지 않은 헤이리 예술인 마을 내 위치한 국내 최초의 한국 근현대사박물관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잊고 살았던 그 시절의 추억이 보물처럼 잠들어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루어진 박물관 내부에는 7만여 점의 생활 자료가 가득한데, 무엇보다 60년대 전후 서울의 풍경을 통째로 옮겨 온 듯 달동네와 골목길 속 상가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어 그 시절 삶의 흔적까지 추억하게 만든다.

한국전쟁 이후, 가난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았던 서민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면 보고 싶었던 얼굴이 하나, 둘 아른거린다. 이리 찬란할 줄 몰라, 그리 빨리 보내버린 유년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를 때면 과묵했던 어른들마저 어느새 아이마냥 재잘거리기 십상이다. 촉고 배고팠지만, 순박하고 성실했던 삶의 흔적을 되짚어 걷다 보니, 그래도 '우리 참 행복했구'란 생각에 흐뭇한 미소마저 짓게 된다.



▲ 근현대사박물관 외부



◀▲ 근현대사박물관 내부



## 이 또한 곧 그리워질 내일이 되리, '벽초지문화수목원'과 '자운서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추억과 숨바꼭질을 하는 새 부쩍 짧아진 하루해가 가을겨린다. 서둘러 엉덩이를 털고 임진각으로 향한다. 여유가 있다면 임진각으로 향하는 길목, 산책하기 좋은 '벽초지문화수목원'과 자운산 자락에 위치한 울곡 이이의 유적지 '자운서원'을 둘러보는 것도 추천한다. 우거진 수목 사이를 느긋이 걷다 보면 일상의 조금함이 조금쯤은 잠잠해지는 듯도 싶다.

급히 달려간다 해서 내일이 오늘보다 반드시 더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 잠시 이 계절을 거닐어 본다. 지나고 나면 이 또한 못 견디게 그리울 언젠가의 내일이 있을 테니.



▲자운서원



벽초지문화수목원 ▲▶



## 잊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임진각 관광지'

그렇게 한숨을 고르고 마주한 종착지, 임진각에는 어느새 아롱아롱 노을의 그림자가 잠겨든다. 평화누리 공원 내 색색의 바람개비가 겨울 찬바람의 재촉에 심 없이 제 몸을 놀리는 동안 달리고 싶은 철마는 한껏 웅크린 몸을 웅크린 채 북녘의 땅을 바라본다. 한국전쟁 당시 포탄에 의해 부서진 다리가 상처처럼 남아 오래도록 가슴이 시리다.

이 땅이 둘로 나뉘던 날, 봄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 해의 마지막 날이면 또 어김없이 멀지 않은 북쪽의 고향땅을 향해 향을 피우고 기원할 것이다. 너무 멀리 떠난 이가 있다면 떠난 길이 외롭지 않았기를, 혹여 가슴 사무치게 그리운 이 마음처럼 그 마음 역시 아픈 이라면 잊지 말고 기다려 주길. 그래, 이제 곧 온통 연하고 푸릇한 것으로 가득했던 내 어린 날 고향의 봄을 만나러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임진각



▲바람개비언덕



▲망배단

<글.권혜리 / 사진.김규성, 통일교육원>



“새롭게 단장한 오두산 통일전망대, 겨울여행 필수코스”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1992년 개관 이래 국내외 1천9백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통일체험 교육의 장입니다. 통일교육원은 올 여름 문화예술을 매개로 통일에 대한 염원과 기대를 국민들과 함께 모아나가기 위해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새롭게 단장했어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체험관, 강익중 작가가 실향민 4천여 명의 고향그림으로 제작한 ‘그리운 내고향’ 작품, 북한지역 가상체험 영상 등 온 가족이 모두 함께 즐기면서 온 몸으로 통일염원을 느낄 수 있는 체험공간을 구성했습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오셔서 전시도 둘러보시고, 맑고 투명한 바람을 맞으며 북한 지역뿐만 아니라 서해 바다 철새와 아름다운 낙조도 조망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금순 통일교육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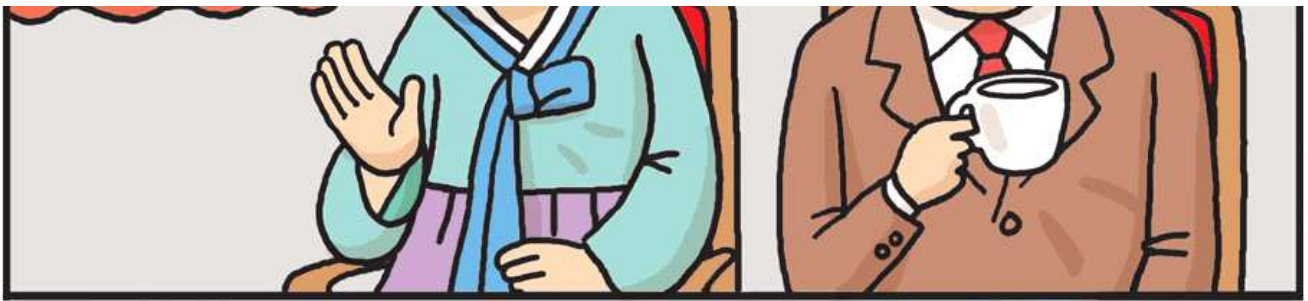
# 첫날 옷이 대체 뭘데?

\* 첫날 옷(북한말) = 웨딩드레스(남한말)

글. 권혜리 / 그림.이택종









이놈의 자식! 아이가 생겼으면 엄마한테  
먼저 말을 해야지!!

퍼

사돈 뵤 면목이  
없어요.

뭐?! 아이???

No

No

아, 아니에요!!  
엄마, 어머니!!!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럼 첫날 웃은 대체 뭔데??







# 연말에 딱! 알맞은 쫄깃한 해산물 잔치, 원산잡채

우리가 흔히 즐기는 남한의 잡채는 당면에 고기와 야채를 넣고 볶은 요리지만, 북한의 원산잡채는 동해안 항구 도시인 원산의 특징을 살려 문어, 대합, 홍합, 전복, 해삼 등의 제철 해산물을 푸짐하게 넣어 풍미를 더했다. 덕분에 큼직하게 썰어 넣은 해산물의 쫄깃함을 원 없이 맛볼 수 있다.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지만 모두 썰어서 볶아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며, 요리에 자신 없는 사람들도 정성으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요리라 할 수 있다.

## 요리재료

당면 150g, 문어 100g, 새우 100g, 명주 조개 100g, 전복 50g, 양파 1/2개, 고추 1개, 피망 2개, 당근 1/3개  
양념장 재료 : 간장 3큰술, 물엿 2큰술, 참기름 1큰술, 다진 파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깨소금 약간, 후춧가루 약간, 소금 약간



## 요리방법



1 문어와 새우는 끓는 물에 데친 뒤 가늘게 썰어준다.



2 명주조개, 전복은 깨끗이 손질하고 삶는다. 이후 명주조개는 살을 바르고, 전복은 얇게 저며준다.





3 끓는 물에 당면을 넣고 5분 정도 삶은 뒤 적당히 잘라준다.



4 양파는 채 썰고 고추는 씨를 뺀 뒤 당근, 피망과 함께 잘게 썰어 볶아준다.



5 준비된 레시피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고 프라이팬에 볶아 감칠맛을 더한다.



6 준비된 재료와 양념장을 한데 섞어 마무리하면 완성.

<글.사진 / 요리연구가 박민지>

## 강원도 원산? 아니면 함경남도 원산?

한반도 동부의 작은 어촌마을이던 덕원부 원산촌은 반도지형과 여러 섬에 둘러싸여 있다. 항구에 알맞은 지형 때문에 강화도 조약 이후 개항 항으로 선정되면서 대표적인 항구 도시로 성장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원산은 함경남도에 속했으나, 1946년 소련군정에 의해 강원도로 편입된 탓에 원산잡채는 강원도 원산에서 만들어진 함경도 향토음식으로 분류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북한이 경제난을 겪고 시장이 생겨나면서 원산은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하게 됐다. 일본과 가장 가까운 항구이기에 일본산 중고 가전제품, 자전거, 자동차 등이 쏟아져 들어온 것. 이에 더해 최근에는 '원산을 제2의 평양으로 개발하라'는 교지를 내려 외국인 호스텔 구역, 김정은 별장, 청년야외극장 등이 만들어졌다.



※ 원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통일'이란 글자를 찾아보세요! 이벤트 당선작



독서의 계절 가을, 책을 읽다가 '통일'을 찾아냈어요!

'학교가 알려주지 않는 세상의 진실'이란 책 속에 4부 '지식에 대하여'의 한 페이지를 촬영했어요. '역사상 최고의 기회는 지금 한국에 있다, 변화에 휩쓸리지 말고 주도하라'는 내용이 인상적이네요. '남북통일이 되는 순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러시아와 중국을 육로로 오갈 수 있는 나라가 되며, 잠재력이 큰 중국 시장을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 이런 강점으로 통일에 따른 비용 문제는 순식간에 극복할 수 있다'는 문구 보이시나요?

(박미진)



'통일의 기쁨을 상징하는 판문점'이 되길...



병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 안 광고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생산되는 쌀 광고 속 '통일'이란 글자인데요. 흔들리는 전동차 안이라서 화질이 떨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파주는 '판문점'이 있는 곳이고 분단의 아픔과 통일에 대한 열망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제가 '통일'이란 글자를 찾고자 하는 열망 덕분에 이 글자를 찾게 된 것처럼 남북한 국민 모두가 통일에 대한 소망을 가슴 속에 품는다면 '분단의 아픔을 지닌 판문점'이 '통일의 기쁨을 상징하는 판문점'으로 바뀔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활 속 '통일'글자 찾기로 우리 가까이 있는 통일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숙)



## 통일이 되면 원조 북한 음식을 맛보고 배워볼래요!

안녕하세요? 최근 한식조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요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요리 공부에 도움이 될만한 참고 도서를 찾던 중 '북한 식객 ; 통일을 꿈꾸는 밥상'이라는 제목의 책이 눈에 들어와서 보다 보니 북한 음식의 다양한 맛과 멋에 금세 매료되었습니다. 남한 음식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듯한 느낌을 받아 재미났고요. 한식뿐만 아니라 북한 음식도 같이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도서를 대여 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꼭 한번 본고장으로 가서 원조 북한 음식을 맛보고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석준)



## 태극바람개비 만들며 통일생각 했어요!



지난 10월에 열린 '제9회 통일문화한마당' 행사에서 민주평통 진천군협의회가 태극바람개비 만들기 체험 부스를 운영하기에 '한 줄 통일생각'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배너에도 '통일', 현수막에도 '통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도 '통일'... 통일이란 글자가 많이 들어갔쥬?? ㅋㅋㅋ

(통일해바라기)



## 평화통일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며 통일염원 되새겼어요!

제가 한 달 전에 참여했던 '제6회 광주평화통일 마라톤대회' 사진입니다. 4회째 열리는 대회인데요, 수많은 마라톤 애호가들이 모여 함께 뛰면서 한마음으로 통일을 기원했습니다.

(김영환)







한 달 미리 쓰는 새해 소원

## 남북한 주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새해맞이 통일 소망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북한 친구들에게

- ▶ 이제 12월이 마무리되면 새로운 2017년이 찾아옵니다. 새해를 앞두고 북한 친구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축복과 기원의 글을 적어주세요. 선정된 분들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 또는 2017년도에 펼쳐나갈 통일 관련 활동(통일에 관심 갖기, 통일 공부하기, 통일에 대해 지인들과 이야기 나누기, 탈북민 이해하고 배려해주기, 기타 각종 통일 관련 활동) 계획에 대해서 써주셔도 됩니다.

■ 응모기간 : 2016. 12. 02. ~ 2016. 12. 22.

■ 응모방법 : 하단에 비밀댓글로 남기거나  
카카오톡(ID : 행복한통일)에 남겨주세요~

■ 당선자수 : 5명

■ 시상내역 :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한 상품 미수령은 당사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 올 한해 생활 속 실천한 작은 통일 을 자랑해주세요.

인증샷 또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e-행복한 통일이 상품과 함께 '폭풍 칭찬' 해드립니다!

통일을 위한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장 생활 속에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들은 많아요.  
국민 스스로가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소망하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돼요.  
한해 통일과 관련된 일을 하셨다면 여기에 자랑해주세요.  
멋진 선물을 드립니다.

- ▶ 예시 : 친구와 통일전망대를 다녀왔어요, 통일골든벨에 참가했어요,  
통일 사생대회에 나갔어요.



- 응모기간 : 2016. 12. 02. ~ 2016. 12. 22.
- 응모방법 : 하단에 비밀댓글로 남기거나  
카카오톡 (ID : 행복한통일)에 남겨주세요~

- 당선자수 : 5명  
시상내역 :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한 상품 미수령은 당사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웹진 e행복한통일

# 감상평 남기고 **★** 선물받으세요!

- 12월호를 끝으로 올해의 'e-행복한통일' 웹진이 모두 발행됐습니다.  
올 한 해 선보인 기사들은 어떠셨나요? 내년에는 더욱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e행복한통일 제작팀은 독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때론 격려가 되고 때론 더 잘해야겠다고 분발하곤 해요.
- 한 해 동안 웹진을 지켜보며 기억에 남는 기사 내용 혹은 느낀 점을 적어주세요.  
당선된 세 분께는 **영화 관람권 2매**를 보내드립니다.



- 응모기간 : 2016. 12. 02. ~ 2016. 12. 22.
- 응모방법 : 하단에 비밀댓글로 남기거나 카카오톡 (ID : 행복한통일)에 남겨주세요~
- 당선자수 : 3명
- 시상내역 : 영화관람권 각 2매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한 상품 미수령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 e-행복한통일 이벤트 당첨자 발표

민주평통 웹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 '가을감성 4행시' 이벤트

번호	닉네임	이 메 일
1	부자되자	**y0407@nate.com
2	유지복	**d1163@hanmail.net
3	터보다시	**oqkr0301@naver.com
4	복학생	**joil@naver.com
5	수리노을	**rihoa@naver.com

### 🎁 '북한말-남한말 같은 단어 선긋기' 이벤트

닉네임	이 메 일	닉네임	이 메 일
아메리카킹	**jk1511@naver.com	통통일	**dgk3532@naver.com
방국태	**ingco20@naver.com	매화	**k203@naver.com
미로	**wngh1771@naver.com	최우석	**4444@naver.com
이희광	**da0@naver.com	알루	**e0881@naver.com
문지훈	**kjh@naver.com	너구리중사	**ename30@gmail.com
김희원	**ewon1212@nate.com	행복	**any05@naver.com
김찬식	**stlrl@hanmail.net	이승민	**067@naver.com
왕언니	**87kjh@naver.com	송송	**dud53@nate.com
나리	**stlsaksrh123@naver.com	정민	**kk753@naver.com
미야	**2085@naver.com	아기천사	**pwon@naver.com
송정민	**jm1318@naver.com	우정호	**ojeongho@hanmail.net
양혜지	**eji0229@naver.com	쑤기	**lee7138@naver.com
태현맘	**ter9@hanmail.net	김진선	**u136@naver.com
상륜	**mclover@hanmail.net	천하	**xhdfud789@naver.com
송치	**dy123@daum.net	정휴채	**er83@paran.com



 '웹진 만족도 조사(email)' 이벤트

번호	휴대폰 번호	번호	휴대폰 번호
1	010-**33-7044	9	010-**50-7091
2	010-**96-7124	10	010-**18-4922
3	010-**21-0037	11	010-**15-7727
4	010-**26-1396	12	010-**84-7458
5	010-**54-3326	13	010-**09-5337
6	010-**73-8532	14	010-**13-7962
7	010-**18-7317	15	010-**96-1833
8	010-**18-7314		

**당첨되신 분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